

# 호흡의 흔적

1

손에 쥔 청소기는 위잉잉……, 하며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내 몸은 시간이 멈춘 듯, 방 한 구석에 두 발을 붙이고 시선은 오로지 한 곳을 향한 채 얼어붙어 있었다.

이게 왜 여기에……

청소기로 먼지를 빨아들이려 장롱 안 서랍을 열자 구석에 먼지가 쌓인 작은 플라스틱 통이 놓여 있었다. 밑에 깔아놓은 하얀 천에서부터 분포한 뽀얀 먼지들이 얼마나 보관해두었는지 그 세월을 음미시켰다. 그 통 안에는 두루마리처럼 들들 말아, 펼쳐지지 않게 가운데를 실로 묶은 갈색 용지와, 마치 제주바다 특유의 푸른빛을 띄인 고래모형의 목걸이가 양지느러미를 활짝 펼치며 해염을 치는 듯한 모양새가 보였다.

그 물건들을 보자 땀에 범벅이 된 등과 이마가 서늘해졌다. 편지지야 서랍을 정리할 때마다 늘 보았지만 그 작은 통 안에 또 다른 내용물이 들어있을 줄은 몰랐다. 심지어 그게 목걸이일 줄은, 즉 온설이의 유품일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방 안에는 여전히 청소기의 고막을 찌를 듯한 소리가 맴돌고 있었다. 하지만 그리도 큰 소음마저도 내 하얗게 질린 머리를 추스르진 못했다.

아니야……, 마저 치울 거 계속 치우자.

나는 속으로 하던 청소에 집중하자며 도리질을 했다. 손에 붙잡고 있던 청소기를 잠시 끄고 심호흡을 했다. 청소기의 전원을 끄자 아까부터 격하게 뛰는 심장이 더 고스란히 느껴졌다.

“스으읍, 후우우……”

코로 들이마신 뒤, 입으로 내쉬는 것을 연거푸 반복했다. 하지만 아무리 해봐도 쉽게 진정이 되질 않았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다시 청소기의 전원을 켰다. 그래도 마저 하던 청소는 마쳐야 했기에, 미심증이 가지지 않는 머리를 애써 외면하고 다시 청소를 시작했다.

청소를 하는 동안에도 아까 우연히 보았던 목걸이가 머릿속 주위를 맴돌았다. 거슬림이 쉽게 떨쳐지지 않아 중간 중간 베란다 앞에서 머리를 식혀보았지만, 이미 그 목걸이는 내 머릿속에 깊숙이 자리했고 청소를 하는 내내 머리를 압박했다. 그 이후로도 한동안 청소에 몰두하기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목걸이는 자연스럽게 잊혀졌고, 겨우 길고 길었던 대청소를 마무리했다.

오랜만에 몸을 양껏 움직이다보니 아까보다 몸이 더 후덥지근해졌다. 휘청이는 몸을 겨우 이끌고 소파에 오자마자 털썩, 몸이 엎어졌다. 땀지락거릴 힘도 없어 엎드린 상태로 눈을 붙이고 잠시 숨을 골랐다. 땀에 젖은 온몸에 신경 쓸 여가도 없이

취고 싶은 본능이 먼저 앞섰다. 찻잔을 뒤로하고 잠시 동안 숨을 가다듬고 있었는데, 갑자기 무언가가 너리를 스친 듯, 눈이 번쩍 뜨였다.

뭔가 잊어먹은 것 같은데……

그 생각이 들자 저절로 상체가 일으켜졌다. 기억이 날 듯 말 듯해 한참동안 가만히 앉아 되짚어보려 안간힘을 썼다.

아, 그렇지.

마침내 생각이 나자 아까까지만 해도 육신거리던 다리가 절로 방을 향해 달려갔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 새하얀 장롱 문을 열어 서랍을 칸마다 뒤적였다. 내 손은 뭐가 그리도 급했는지 제대로 찾고 있는 게 맞나싶은 와중에도 허겁지겁 재빨리도 움직였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 플라스틱 통은 눈에 보이지가 않았다.

분명 여기서 봤는데……

초조한 마음으로 서랍을 마구 뒤져보자 맨 아래, 세 번째 서랍 칸 구석에서 아까 보았던 그 플라스틱 통이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속에서 푸른빛을 발휘하는 목걸이는 아까 보았던 목걸이가 분명했다. 나는 그 통을 짹째게 집어 뚜껑을 열고는 통 안에 들어있던 내용물을 모조리 침대 위로 탈탈 털어냈다.

내용물은 두루마리로 묶인 종지와 목걸이 뿐이었다. 그리고 아까 전, 내 눈에 들어왔던 고래모형의 목걸이의 모형부분을 집어 이리저리 살폈다.

더욱 자세히 보니 온설이가 생전에 애지중지하며 달고 다니던 목걸이와 매우 비슷했다. 분명한 건 나는 그 애와 이 목걸이를 함께 맞춘 적이 없다. 그렇다면 이 목걸이는 거의 온설이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근데 왜 여기에?

유품을 보고 있자니 절로 온설이가 떠올랐다. 그러자 코가 시큰해지고, 무언가가 심장을 헤집는 듯한 고통이 육신대며 몰려왔다. 목걸이를 들고 있는 오른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나는 목걸이를 쥐고 있던 손을 놓아 가슴팍으로 가져갔다. 그리곤 쓰러린 속을 달려려 꺾꺾, 억눌렀다. 간만에 그 애를 떠올리자니 나아지나 싶었던 가슴은 다시 서러움을 피어냈다.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 이번엔 연한 갈색의 두루마리종이를 들어올렸다. 이 종이는 삼년 전, 즉, 온설이가 살아있을 적, 내게 전했던 편지였다. 편지의 질감은 마치 박스나 종이쇼핑백에서 흔히 느낄 수 있는 질감이었다.

편지를 두 엄지로 몇 번 쓰다듬으며 오랜만에 그 종이의 감촉을 느껴봤다. 이번엔 속이 쓰라리기 보단 가슴에 작은 불씨가 피어난 듯 따사로운 기운이 맴돌았다.

한참을 만지작거리다 이내 두루마리를 묶고 있던 실을 풀고 펼쳐보았다.

어?

편지를 여는 순간 눈을 의심했다. 종이를 펼쳐보니 편지의 내용 대부분의 글씨가 지워져있었다. 지워지지 않은 부분은 나에게 보낸다는 표시의 'To. 서혜'와 편지 내용 네 줄 정도밖에 없었다. 그것도 서너 번째 줄은 절반 이상이 조금 흐릿하게 보이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대충 읽을 수 있는 부분만 본다면 이러했다.

To. 서혜

혜야 안녕!(네 이름 제대로 불러보는 건 처음인 것 같다ㅋㅋ) 우선 독립을 축하한당, 친구야! 네가 있는 제주의 공기는 언제? 도시와는 차원이 다를 만큼 상쾌하지 않니? 나는 그동안 너와 같이 한 집에 지내면서 정이 쌓이다 보니 네가 자리를 비우니까 내 방 공기가 어딘가 허전하고 묵직하게 느껴지더라ㅠㅠ 그리고 너 혼자서 잘 지낼 수 있을까 걱정되기도 하지만, 독립을 통해 네가 좀 더 자립심을 키울 수 있다면 나는 그 경로도...

한 땀마다 성심으로 채운 문장들을 읽자니 온설이가 곁에서 직접 읊어주는 듯 글체에서 그 애의 음성이 느껴졌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혜야 안녕'이라는 문장이었다. 그 문장 좌측을 보면 흔히 잘못 쓰인 단어를 지울 때처럼 잉크를 여러 번 그은 것이 보였다. 나는 처음 받았을 때부터 왜 첫 마디가 자리혜야 할 부분을 잉크로 가린 건지 단번에 알아챌 수 있었다.

온설이는 항상 나를 부를 때마다 '서혜야' 하며 성까지 부르는 버릇이 있었다. 본인은 외자 이름이 익숙지 않아서라는 그런 단순한 이유였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쓸 때에도 평소에 부를 때처럼 '서혜'라고 적어버린 것이다. 분명 본인도 아차 싶어서 빈틈없이 꼼꼼히 가려낸 것일 테다. 하지만 나는 그 자잘한 실수가 싫지 않았다. 나는 이름만 부르지 않고 성까지 붙여서 부른다는 그런 또 하나의 단순한 이유로 오히려 애정 있다고 여겼다. 그런 점을 생각하면 생각보다 단순하고 순진한 사람이었구나 싶었다.

너는 내 이름 '서혜'라는 글자를 입으로 소리 낼 때마다 한 땀 한 땀 섬세하게 바느질 하듯 정성스레 불러줬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혜야 안녕'이라는 문구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문장을 가만히 훑어지게 쳐다보니 그 애의 목소리가 귓가에 퍼지는 것 같았다. 아무리 목소리가 좋은 사람이라도 그 특출하게 부드럽던 음성을 따라잡을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목소리가.

그리고 보니 편지지에서는 흔적도 없이 지워졌음에도 기억 속에서는 쉬이 지워지지 않은 문장이 하나 있었다. 나는 아직도 편지 마지막 줄에 적혀있던 그 문장을 잊지 못하고 있었다. 너무 임팩트가 있었던 나머지 수많은 온설이와의 추억들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된, 끝내 이름 한 자만 부르는 게 익숙지 않았던 그 애가 팬스레 눈치를 드러내며 썼던 그 문장.

**'아, 혹시 너도 내가 이름만 부르는 게 어색하다 싶으면 그냥 나도 서혜라고 부를게!  
(물론 내 심보가 원하는 이유도 있지만ㅋ)'**

참 어이없고도 순박한 문장이었다. 나는 문장 끝부분을 볼 때면 서럽다가도 끝내 웃음이 절로 나올 것 같다곤 했었다.

하지만 우습게도 나는 충분히 웃길만한 그 문장을 버릇처럼 보곤 했던 기억 중에

하염없이 울던 기억이 먼저 뜨이곤 했다. 잠시 외면하고 지냈던 기억이 떠오르자 절로 고개가 젓혀졌다. 그리곤 하얀 천장이 보이지 않게 눈꺼풀을 덮고, 손을 뒤로 해 침대 시트를 짚어 회상에 몸을 맡겼다.

성년의 시작이라고 불리던 스물, 내가 자립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애와의 동거를 끝내고 독립을 택했던 그 늦가을 혹은 초겨울. 독거를 시작한지 일주일 조금 넘었을 때 온설이는 나에게 조그마한 디퓨저 여러 개와 꽤 장문의 편지 하나를 전해주었다. 누군가에겐 그저 흔한 안부인사와 다름없겠지만, 독거 첫 날부터 고비가 왔던 나에게 그 편지는 이유모를 위화감과 허전함, 외로움, 우울 등 내 가슴을 쿵쿵췌시던 여러 감정들을 순식간에 달래주었다.

나는 그 전까지만 해도 누군가의 편지 하나에 내 마음이 그리도 울릴 줄도 몰랐고, 독거를 하는 동안 날 괴롭혀왔던 모든 감정들이 고작 그 애가 보낸 편지와 작은 선물들로 금세 나아질 줄은 더더욱 몰랐다. 그 편지를 처음 읽어보았을 때, 나는 마치 온설이의 손을 맞잡은 것처럼 편지를 들고 있는 내 손에 미세하지만 따스한 그 애의 온기를 느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내 발목을 붙잡아왔던 긴장이 순식간에 날아갔고, 그 때문인지 입에서는 미소가, 눈에서는 눈물이 떨어졌다.

그날 밤, 나는 제주에서 처음으로 편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었고, 더구나 다시 한번 남은설이라는 존재의 귀중함을 깊숙이 새기기도 하였다. 예전부터 온설이의 마음씨를 다시금 느낄 때마다 나는 그 애가 선의의 마법으로 빛어진 사람이 아닐까하는 유치한 생각도 적지 않게 했었지만, 그날은 정말 그 애가 편지에 마법이라도 부린 것 같다며 착각하기도 했다.

그 후에도 나는 난데없이 우울하고 외로워지는 때가 오면 그 감정을 달래고자 종종 편지를 열어보곤 했다. 그 애가 보낸 편지를 매번 질리도록 읽어봐도 도중에 웃음이 새이다가 코가 찡해지거나 하는 감정이입은 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괜히 구석진 곳에 보관했다가 시간이 지나 잊어버리는 경우가 생기진 않을까하는 노심에 그 편지를 내 눈에 대놓고 보이는 곳에 보관해두고 싶었다. 그래서 내 방 창가에 편지를 내용이 다 보이도록 짝 펼친 채로 디퓨저와 함께 가지런히 놓았다. 햇빛과 유리병이 반사되어 눈을 찌르는 디퓨저와, 갈색용지와 햇살이 만나 샛노란 빛깔을 띄우는 편지의 조합은 어느 인테리어도 따라잡을 수 없이 내 눈에 황홀감을 돋아냈다. 그 이후로도 그 편지와 디퓨저는 그 애의 자리를 대신하듯 조금만 쳐다봐도 나를 감아먹는 공허함을 달래주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집안은 온설이가 보내준 물품이나 도구들로 빼곡해졌다. 처음엔 필요한 것이 그다지 떠오르질 않아서 필수품만 소지한 상태였기에 집안이 워낙 허했다. 그렇지만 온설이가 간간히 작은 선물이나 물품을 보내주는 덕에 험한 감은 남아있더라도 빈틈이 꽤나 줄어들었다.

나는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내게 신경을 끊지 않는 온설이가 아주 고맙게 느껴지

면서도 때때로 내가 너무 받기만 하는 게 아닐까 하는 부담감도 부풀어만 갔다. 그래서 내가 받은 만큼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온설이의 마음을 충족시킬 선물을 주는 날이 오길 바랐다.

그 다짐이 굳혀질 때쯤부터 내 앞으로의 생활보단 온설이의 선물을 생각하며 일을 했다. 가끔씩 돈이 모여가는 걸 느낄 때면 온설이에게 무엇을 전하면 좋을지 곰곰이 생각해보며 버릇처럼 인터넷을 둘러보기도 했다. 그리고 통장에 어느 정도 돈이 생겼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온설이에게 연락을 해보았다. 나는 기브 앤 테이크는 당연하다 생각했고, 분명 온설이도 마음을 가득 담아 보내면 기뻐할 거라고 예상했다. 그 때문에 스무 살의 나는 온설이의 완강한 거절이 전혀 이해되지 않았다.

“그동안 너한테 받은 게 산더미라 월급 쌓이면 네가 갖고 싶은 거나 필요한 거 꼭 사주려고.”

“난 가진 게 너무 많아서 고민이지. 나는 괜찮으니까 내 생각 말고 네 몸만 챙겨~.”

“그래도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내가 준 건 아무것도 없잖아. 그에 비해 나는 너에게서 받은 게 너무도 많으니까 나도 네가 바라는 거 있음 주고 싶어서.”

“음, 네가 건강 지켜가면서 지내는 거? 그거 외엔 전혀 바라는 거 없어~.”

“자꾸 농담 하지말구…… 그럼 지금은 가물가물하니까. 나중에 떠오름 얘기해줘.”

“내가 필요한 건 내가 챙길 거니까 다음부터 네 몫 생각하면서 지내. 통화 끝나면 또 뭐 사준다면서 돈 아끼지말구.”

하지만 나는 그 말에 의문이 들었다. 나에겐 허락도 받지 않은 채로 물품을 보내던 온설이가 자신이 받는다 하니 기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했다.

“근데, 너 지금까지 틈만 나면 나한테 뭘 보내줬으면서 내가 준다니까 단단히 거절하고 그래?”

“서혜야, 상대방이 괜찮다고 거절하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여도 괜찮아. 원하지 않는 배려는 시도하지 않는 게 좋으니까.”

“그럼 지금까지 내 의견을 들은 적도 없으면서 물품을 보내준 이유는 뭐야?”

“음, 그다지 큰 이유는 없고 그건 그냥 내 마음이었어. 미리 생각해둔 게 아니더라도 가끔 좋아 보이는 물품 같은 게 보이면 자꾸 너한테도 주고 싶고 그러더라. 아, 혹시 너도 원하지 않는 거면 택배 보내는 거 그만둘게. 그동안 불편했던 거라면 미안해.”

“아니, 불편했던 건 아니고 나도 너랑 생각이 같아서 그래. 너도 내 생각한다면 자꾸 주려고 하지 않았음 하는 마음이라서. 아, 조금 불편한 감도 없지 않아 있던 것 같기도?”

“내가 조금 생각이 짧았나 봐. 너한테 뭘 보낼 때마다 기분이 들떠서 고려에는 눈이 멀었던 것 같아.”

“그럼 나도 네 고려를 무시해가며 무얼 보낼 자격 정도는 가져야 하지 않겠어?”

나의 뼈를 때리는 말에 온설이는 당황한 듯한 웃음을 보였다. 나도 곧이어 웃음이

터지고 온설이는 애써 말을 이었다.

“그래도 아직 거기서 지낸 지 세 달 밖에 채우지 못했잖아. 나중에 생각하면서라도 네가 쓸 돈 차곡차곡 모아봐. 그리고 네가 방금 말했잖아, 지금 안 떠오르면 나중에 얘기해도 괜찮다고. 갖고픈 거 나중에 떠올렸을 때 얘기하면 되지.”

나는 거기서 말을 이어 봐도 도돌이표마냥 이야기가 반복될 것 같아 그쯤에서 대화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알겠어…… 천천히 생각해 봐. 단, 내년까지 말 못하면 거절하든 말든 내 마음대로 보내는 줄 알아라.”

그렇게 현실친구다운 말장난과 택배는 그만 보내도 괜찮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통화를 마쳤다.

막상 농담을 던지며 끝을 맺었지만 온설이에 대한 섭섭함은 통화가 끝난 후에도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하나 뿐인 친구에게 선물을 보낼 기회를 온설이가 내다버린 심정이었다. 그날 밤은 아무리 온설이를 이해하려 해도 허무감을 못 이겨 눈꺼풀이 쉽게 잠기지 않았다.

나는 다음 날에 혹시라도 궁금증을 해결해주시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안고 사장님께 어제 통화했던 내용을 꺼냈다.

“글쎄, 개는 지금까지 저한테 보내준 게 얼마나 되는데 제가 아무리 설득을 건네도 괜찮다는 뉘앙스의 대답만 반복하더라고요. 정말 괜찮은 걸까요, 아님 그저 저에 대한 배려인 걸까요?”

내가 질문을 끝내자 사장님은 턱은 짚으며 잠시 생각에 잠기고는 입을 열었다.

“둘 다 포함되지 않을까? 이유가 꼭 하나라는 법은 없으니까. 심지어 다른 이유가 더 있을 수도 있지. 너희 둘이 친구인 만큼 그 친구도 네가 하는 말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던 거지.”

예전부터 느껴왔지만 온설이는 내가 짐작하는 것보다 생각이 매우 깊은 아이였다. 사장님의 말도 옳았다. 굳이 입 밖으로 꺼낸 이유 말고도 묵혀둔 이유들이 있을 터인데, 그 전날 밤엔 서운한 감정만 앞서 온설이의 입장을 조금도 파악하지 못한 것이었다.

그리고 사장님은 덧붙여 말했다.

“그리고 선물은 처음부터 비밀로 해야 제맛이지. 그렇게 대놓고 선물 갖고싶은 거 없냐고, 고르라 하면 친히 대답해줄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게 왜요? 주는 사람이 주고 싶다는데요?”

“보통 그러면 눈치 보이거나 망설이지. 내 돈도 아닌데 쉽게 답 해줄 리가 있겠냐.”

조금 웃긴 사실이지만 나는 그 전까지 누군가에게 선물을 건넨 적이 매우 감감했다. 그렇기에 고맙다며 순순히 받는 사람과 달리 괜찮다며 거절하는 사람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심지어 그 또한 받는 사람의 배려의 행동

이라는 것도.

그 사실을 깨달은 뒤에, 지금까지 온설이로부터 서슴없이 받기만 했던 나는 정말 눈치가 없는 사람이구나, 배려가 부족한 사람이구나 하며 스스로를 책망하기도, 온설이에게 미안하기도 했다. 아참, 그럴 때 온설이라면 '너무 나무라지 마. 난 오히려 거리낌 없이 받아줘서 고마운 걸.' 하며 초조한 마음을 쓰다듬어줬을 텐데.

하지만 괜찮다는 친구의 말에도 미련은 마음속에 너무나도 많은 공간을 차지했다. 온설이의 말처럼 나중에 받은 만큼 돌려줘도 늦지 않지만, 온설이의 성격이라면 오랜 시간 뒤에도 현재와 똑같은 반응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런 점을 생각하면 아무리 신경을 그만두려 해도 어느새 충분히 충만한 통장을 보며 온설이를 떠올리곤 했다. 굳이 선물같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온설이와 여행을 할 때나, 같이 만났을 때 내가 쓰는 날이나, 온설이네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 것이 생길 때 등등을 대비하며 습관처럼 돈을 가늠했다. 또 언젠가는 거부하지 않고 너그러이 받아줄 날이 오길 기다리며.

한 해가 지나고 내 몸은 제주도에서 완숙이 익숙해졌다. 집에 혼자 있다 해도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고, 카페에서 일을 꾸준히 하다보니 사람과의 당면에도 무르익어갔다. 다만 몇 달간 온설이와 대면할 기회가 없어 한 편으론 섭섭하기도 했다. 눈도 마주치기도 힘든 환경에서 목소리를 들을 기회마저 점차 줄어가자 그리움은 더욱이 뿌리를 뻗었다. 하지만 애뜻함이 오래갈수록 나와 온설이를 잇는 실의 굵기는 부풀어갔고, 그 때문에 그 감정이 결코 모진 감정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아무리 거리가 멀어졌다 해도 머릿속에 온설이를 한시라도 지울 수 없었다. 좋은 제품이 보이면 갖고 싶다는 생각보다도 바다건너에 있는 친구에게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이 먼저인 것과 같이, 맛있는 걸 먹으면 언젠가 놀러올 친구를 위해 가게와 메뉴를 기억해두고, 풍경이 좋은 곳을 발견하면 사진을 찍어 공유하곤 휴가내면 같이 여기서 걷고 싶다며 말을 전했다.

문자를 보낼 때마다 온설이에겐 부담감을 채우는 설레발로 받아들이진 않을까 심려하기도 했지만 이러한 행동들은 온설이도 마찬가지였다. 오늘이나 어제는 무엇을 했고 무슨 일이 있었고 무얼 발견했는지 온설이도 내게 끊임없이 문자를 건넸다. 바로 답장할 시간이 잦은 편은 아니었지만 잠시라도 소통할 수 있는 시간 1초가 너무나도 귀중했다.

요약하자면 내가 제주에서 버틸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온설이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있는 거라곤 서늘한 공기가 대체였던 집안을 서서히 바꿔주고, 그리움이 쌓일 때면 잠시간의 연락으로 달래주고, 사소한 불찰을 바로잡아주어 지금의 내가 두 발을 푹푹이 세울 수 있던 것이다. 이렇듯 한 순간에만 도움을 준 것도 아니고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준 온설이인데, 나는 그 애에게 크나큰 빛을 업은 것과 다름 없었다. 나는 이 빛을 덜어 온설이에게 거름으로 돌려주고 싶었다. 그래서 독립을 하는 시기가 절호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이곳에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잘 지낼 수

있을지, 끝내 독거든 인생이든 지쳐 포기할지, 앞길은 모 아니면 도의 확률이었지만 예전처럼 가지받길만 바라보고, 예상하며 살고 싶지 않았다. 나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온설이가 다시 쥐어준 인생이니까, 온설이의 손길이 헛되이 되길 원하지 않았기에 더 이상 뒤를 돌아보는 일을 거덜 내기로 했다. 오직 나 혼자서라도 빛을 낼 수 있는 미래만을 건너보며. 내가 온설이에게 빛을 건네줄 수 있는 순간을 향하며.

하지만 갑작스레 전해진 뜻밖의 소식에 그동안 내가 쌓아온 바빠 움직였던 발자국들은 헛되이 되어버렸다. 단지 내 발걸음의 속도가 열등했던 걸까. 아니면 독악한 하늘이 우리사이를 못 볼꼴로 깔보며 벼락을 내던진 걸까. 달리는 줄만 알았더니 사실은 느릿한 걸음이었던 내 다리를 나무라 해야 할지, 예상을 주시할 수 없는 하나의 불의를 탓해야 하는 건지. 자책을 해야 할지, 원망을 해야 할지 갈피라도 잡고 싶었다.

너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면 나를 위해 사는 것도 아니라던 내가 끝내 위할 것도, 마랄 것도 모조리 잃게 된 건 한 순간이었다.

내게 처음으로 기별을 전한 사람은 온설이의 엄마, 신열이모였다. 여느 때처럼 카페에서 일을 하던 도중 주머니 속에 휴대폰이 울렸다. 전화가 온 건지 확인하려 핸드폰을 꺼내보니 화면 상단에 ‘신열이모♥’라는 글자가 발신인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모가 웬일로 전화를 하셨는지 감이 안 왔지만, 그동안 연락을 꾸준히 못 드렸던 터라 반가운 마음으로 폰을 들고 카페 뒤편으로 나섰다. 단순히 내 안부가 궁금해서 오랜만에 전화를 했나 싶었다.

나는 초록색의 수신기 모양을 드래그 한 뒤 컷가로 핸드폰을 밀착했다.

“여보세요?”

“어, 그래. 헤야, 오랜만이네.”

“네. 이모, 오랜만이네요. 조만간 연락드리려고 했는데, 무슨 일로 전화하셨대요?”

내가 묻자 이모는 잠시 아무 말도, 아무 소리도 꺼내지 않으셨다. 갑자기 잠잠해진 스피커에 당황한 나는 다시 한 번 이모를 불렀다.

“이모? 이모, 말씀하세요.”

“헤야, 사실 네게 전해주려는 얘기가 있거든. 그런데 가능한 일일지 모르겠지만 네가 이걸 듣고도 부디 큰 충격을 받지 않았으면 해. 심지어 죄책감이나 이런 거 전혀 가질 필요도 없는 거 명심하렴.”

사실 처음부터 김새가 생소하다고 느끼긴 했다. 이모도 온설이와 마찬가지로 나를 자주 보지도, 목소리를 들어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간만에 통화를 할 때면 늘 톤을 상냥하게 높이며 반가이 맞아주셨다. 하지만 그 날은 이모의 목소리 톤도, 말투도 낯설게 다가왔고, 대화의 싸늘한 분위기가 몸을 휘감았다.

“네, 말씀 하셔도 괜찮아요.”

“네가 이걸 듣고 후에 잘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더 늦게 알아채면 네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어서……”

막상 괜찮다며 꺼냈지만 아직까지도 뒷목에 칼이 닿은 듯 서늘하게 자리한 느낌은 가시지 않았다. 평소에 뜸 들이는 법을 보이지 않으시던 이모였기에 그 정도로 초조한 모습을 보인 것은 일생 처음이었다. 나는 초조한 마음에 마른침을 삼켰다. 혹시 온설이까지 큰일이 옴은 건 아닐까 하는 불안한 상상이 머리에 휩쓸리자 마침내 이모가 말문을 열었다.

“우리 온설이가 얼마 전부터 백혈병 때문에 몸이 많이 안 좋았었거든. 온설이가 너한테 말을 안 해서 몰랐을 거야. 그런데 오늘……”

분명 음성이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이어질 말, 이모의 연락연유를 나는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다. 모든 것이 파악되자 눈앞이 까마득히 변해가면서 머리에 총탄을 맞은 듯 갑자기 머릿속이 울렸다. 하마터면 입에서 ‘헉’하는 신음이 튀어 나올 뻔했다.

신열이모께서는 목이 메셨는지 통화 도중 목소리가 끊기고, 뒤이어 스피커 너머로 조용히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자세히 들어보니 숨을 죽이며 우는 게 아니라 얼굴과 스피커를 최대한 멀리한 채 호곡하고 계신 건지,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어딘가 걸걸했다.

나는 이모가 진정을 되찾으실 때까지 이모의 흐느낌을 귀에 담으며 조용히 기다렸다. 나처럼 친구가 아닌 엄마의 입장으로써, 갑작스레 자신의 혈육과 사별을 부닥치셨으니 누구보다 억장이 무너지는 것은 당연했다.

그런데 가만히 훌쩍거리는 소리가 귀에 맴돌던 순간, 난데없이 온설이가 처음으로 내게 눈물을 보인 날이 절로 시야에 아른거렸다. 기절하듯 서서히 잠에 빠지던 내 모습을 보고 끝내 숨져 드러누운 것으로 받아 내 곁에서 통곡하던 온설이. 처음으로 서로의 내면 깊이 감춰둔 상처를 알게 된 그날.

갑자기 그 기억이 되살아나자 심장이 돌덩이에 짓눌린 듯 어마한 통증이 느껴졌다. 그 기억은 언제든 떠올려도 모래성 무너지듯 심장이 잘게 부서지는데,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모의 통곡소리에서 그때의 온설이가 보였다.

결국 꾸역꾸역 삼키던 눈물이 눈가를 헤집고 나왔다. 나는 이모가 입을 열 때까지 기다리며 소리 없이 울었다.

한참을 흐느끼던 신열이모는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다시 말을 이어 온설이가 병사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나는 이모께서 상황설명을 하시는 동안 도무지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할지, 무슨 대답을 드려야할지 혼란스러웠다. 입을 연다 해도 이모의 말씀 중간 중간 ‘네’라는 말만 기계처럼 내뱉을 뿐이었다.

설명을 끝낸 뒤 이모는 장례식에 올 수 있겠냐고 물었다. 나는 망설임 없이 안 된다고 했다. 온설이와 온설이 부모님께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은 들었지만 나는 그 묵직한 공기 속에서 사람들의 면전을 제대로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분명 그 안으로 발을 내미는 순간 내 정신이 온전치 못 할 것이다. 그렇다고 거절의 이유가 단지 내가 원치 않다는 이유라면 온설이 부모님께선 큰 유감이 될 수 있기에 요즘 바

쁘다는 거짓말로 거절의 의사를 표했다. 내가 죄송하다고 하자 이모는 알겠다면, 몸 조심하라는 말을 끝으로 통화를 마쳤다.

사실 통화하는 동안 눈앞이 끈질기게 어지러웠고, 핸드폰을 쥐고 있던 손이 내내 후들거리며 중간에 놓치기라도 할 것 같았다. 그래서 이모의 말씀 한마디마저 집중해서 새겨들지 못했던 것 같다. 통화가 끝나자 긴장과 함께 손아귀에 힘이 풀렸고 휴대폰은 바닥을 향해 떨어졌다. 동시에 하체에도 힘이 빠져 정강이와 무릎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바닥과 함께 충돌했다. 하지만 아파할 틈도 없이 머리는 여전히 핑 돌고 있었고, 눈앞은 무섭도록 까무룩 했고, 심장이 수없이 난도질당한 느낌이 뚜렷이 저려왔다. 통화 도중에는 긴장 탓에 잘 느껴지지 않던 자극들이 연락이 끊어지니 밀도 끝도 없이 육신을 파고들었다. 그 통증들로 인하여 통화를 나누는 동안 간신히 견뎌낸 눈물이 끝없이 터져 나왔다. 흐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울부짖는 정도로 울음을 터뜨린 건 처음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고통보다도 가장 괴로웠던 건 따로 있었다.

‘온설이가 너한테 말을 안 해서 몰랐을 거야.’

나는 온설이가 죽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지만, 그 애가 그동안 내게 백혈병을 숨겨왔다는 사실이 더욱 심장을 조였다.

잠시 뒤에 소리를 듣고 찾아온 사장님이 주저앉은 나를 간신히 부축하고 달래주었지만, 감정이 쉬이 가라앉지 않아 결국 일찍이 퇴근을 했다.

온설이는 나에게 몸이 아프다는 걸 조금도 알리지 않은 채로, 내 앞에선 끝까지 별일 없이 지낸다는 듯이 행동하며 그렇게 숨을 다하게 되었다. 나는 온설이의 몸이 병세로 뒤덮여있었다는 것을 그 애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눈치 채지 못했다는 사실에 자책감이 가슴을 후볐다. 그 때의 심정은 기억을 되살릴 때마다 마치 어제의 일처럼 선명하고 고스란했다.

집으로 향하는 버스 차창너머로 스쳐지나가는 불빛들이 그저 뿌옇게 보였다. 창에 적나라하게 비춰지는 혼을 빼앗긴 듯한 내 멍한 모습도 바깥에 반짝이는 빛과 함께 시야로 들어왔다. 보이는 그대로 기력이 없는 건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미동도 없는 얼굴과는 달리, 머릿속은 난동을 피우듯 복잡한 생각에 엉켜 몸부림치고 있었다. 차마 인정하지 못할 갑작스런 죽음이었다.

통화 도중에는 뒤숭숭한 심정에 입이 쉽사리 벌어지지 않았지만, 연락이 끝나자 궁금한 점들이 뒤늦게 머리를 내밀었다. 언제부터 아팠는지, 온설이가 자신의 병세를 내게 말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온설이가 차마 내게 전하지 못한 말은 없었는지…… 하지만 풀칠을 해놓은 듯 안간힘을 써 봐도 열리지 않는 입술 탓에 나는 목소리마저 제대로 들려드리지 못한 채로 통화를 끝맺었다.

그 뒤에도 신열이모께선 한 번 만나보지 않겠냐고, 얼굴만이라도 보고 싶다면 나에게 간곡히 부탁했지만, 나는 이미 이 섬에 발을 묶어버린 상태였기에 신열이모,

즉 온설이 부모님이 계신 땅에 발을 들일 자신도, 온설이 부모님을 제대로 마주할 자신도 없었다. 그렇기에 늘 돌아가는 답변은 대체로 긍정적이지 않았다.

다음 날도 일을 하는 내내 안색이 좋지 않자 사장님은 내게 일주일간의 휴가를 주셨다. 사장님은 친절하고 눈치가 빠른 분이래 그런지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내 속을 쉽게 들여다보셨다. 물론 내가 표정을 쉽게 감추지 못한 탓도 있었다.

휴가를 받고 집에서 폭 쉴 예정이었지만, 산란한 마음속은 머리를 식힐 틈도 없이 내 뇌리를 괴롭혀왔다.

휴가 첫날부터 우울에 깊이 잠겨있었고, 어수선한 감정 탓에 휴식을 취하는 기분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 그럴 때마다 이불 속에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거나, 잠을 자거나, 음악을 듣거나, 그냥 멍을 때리면서 하루를 버텼다. 이불 밖으로는 화장실을 갈 때나 끼니를 때울 때 빼고는 발을 던지 않았다. 애초에 몸이 마음과 따로 놀듯, 전혀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이튿날부터는 우울감이 전날보다 더 심해져 잠도 오지 않았고 핸드폰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전날 밤에 아침에 일어난다면 분명 꿈일 거라고, 다 허상일 거라고 빌며 잠에 들었지만 하늘이 바뀌어도 울적한 기분은 그대로였고, 그렇게 다시 자각과 부정을 오가며 내내 실성했다.

삼일째 되던 날, 그 전날들처럼 침대에 가만히 누워 노래를 듣고 있던 도중, 침대 옆 창가에 놓인 연갈색 편지지가 눈에 들어왔다. 편지 옆에 놓여있는 디퓨저가 햇빛에 반사되어 눈을 저릿하게 했다. 내 손은 흘린 듯이 편지지로 가닿았다. 하도 몸을 까딱이지 않아서 그런지 손을 위로 뻗는 것마저도 고단했지만, 간신히 편지지를 집어 가져왔다. 몸이 굳어가면서 체력도 소진된 건지 동작이 그리 크지 않은데도 숨이 찼다.

가만 보니 한동안 눈길을 줄 새도 없었던 편지가 갑자기 시야에 들어온 걸 보니 그제야 온설이의 죽음에 실감이 오르는 것 같았다. 나는 허탈한 한숨을 뱉곤 조심스레 편지지를 열어 보았다.

그런데 어느 새 사라져버린 건지 빼곡히 적혀있던 글씨들은 위쪽으로 위치한 네 줄을 제외하곤 모조리 잉크가 지워져 있었고, 조금의 흔적마저 나타나지 않았다. 그 모습이 눈에 들자, 순식간에 머릿속이 창백하게 식었다. 차라리 내 눈이 잘못된 것이길 바라며 눈을 미친 듯이 손으로 문질러보았지만, 역시나 편지의 이면은 조금도 뒤바뀌지 않았다.

순간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두통과 그 충격에 의해 컷가에 날카로운 이명이 동시에 스며들었다. 마치 온설이의 사별을 처음 마주했을 때의 그 충격과 맞붙어있었다. 나는 그 애가 한 땀, 한 땀 정성스레 잉크를 눌러간 흔적들을 더 이상 눈에 붙일 수 없다는 사실에 좌절감이 온몸을 짓눌렀다. 햇별이 노출되는 곳에 보관해서 그런지, 아님 종이가 문제였던 건지, 여러 연유를 떠올릴 겨를도 없이 머리채를 짝 부여

잡고 원통하며, 오열이 묻어나는 신음을 무자비로 뱉어냈다. 그제야 목구멍에 걸려진 듯, 속을 답답하게 했던 눈물방울들이 그칠 새도 없이 쏟아졌다.

그날 나는 다시 한 번 온설이를 잃어버린 듯한 심정으로 한참을 울며 심장에 멍을 키워냈다.

그 이후로 남은 4일 동안은 감정을 조절하기가 더욱 힘들어졌다. 아무렇지 않은 듯 멍을 때리다가도 갑자기 눈물이 얼굴을 덮을 때도 있었다.

가끔은 내가 어리숙한 탓에, 내가 모자란 탓에 생전에 더 잘해주지 못했다며 미안한 마음을 품다가 왜 내게 아프다는 사실을 전하지 않았냐며, 갑작스레 하나뿐인 친구의 죽음을 맞이하게 했냐며 그 애를 실컷 미워했다.

그렇게 일주일동안 칼질을 당하듯 산산이 부서진 심장은 나의 끝없는 감정소모로 인하여 점점 나락으로 내팽겨 쳐졌다. 그리고 1년 후인 지금까지도, 혹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사무칠 괴로움을 끌어안게 되었다.

툭, 하고 눈물 두 방울이 시트위로 떨어지자 적셔진 시트의 천이 동그랗게 진회색으로 물들었다. 나는 그걸 보고 재빨리 눈가에 손을 가져갔지만 눈물샘은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져 아무리 닦아내도 눈살만 따가워질 뿐, 하염없이 나오는 눈물을 모조리 훔치긴 힘들었다. 나는 눈물을 닦아내는 손을 멈추고 내 무릎을 끌어안아 두 다리 사이에 얼굴을 묻었다. 왜 갑자기 생각의 방향이 어두운 쪽으로 흘러간 걸까. 분명 제주에 처음 발을 들인 날부터 그 편지를 받았던 날을 떠올리고 있었는데 왜 도중에 그 생각이 끼어든 걸까.

그 전에도 그랬다. 그 애를 머릿속에 띄우자하면 찬란함이 가득한 추억들로 무수히 얼룩진 4년보다 지난동안 내 심장을 수없이 죄어들던 그 쓰라린 기억이 먼저 떠오르곤 했다. 그 때부터 그 애를 떠올리는 것이 두려워졌고, 어느 순간 절로 생각이 들 때면 눈을 감거나 귀를 막아버리곤 했다. 그렇게 서서히 그 애를 잊고 싶었다. 그 애가 죽는다 해도 너를 끝까지 기억하리라 다짐했던 나인데 어이없게도 그 친구를 지워내려 애썼다. 하지만 아무리 안간힘을 써도 온설이를 잊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었다. 이미 온설이의 육체는 내 눈 속에 담겨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태를 나타내고 있었고 내 귀에는 그 애의 간드러지던 목소리가, 내 손에는 보드랍고 햇살보다도 따스했던 그 손의 온기와 촉감이 덕지덕지 남아있었다. 죽어도 마치 살아 숨 쉬는 것처럼 온설이의 흔적은 내 몸 구석구석에 사그라지지 않은 채로 자리 잡았다. 그 애로 가득한 추억들은 닦아내려 할수록 더더욱 생생해지고, 내 심장은 기억의 파편들에 찢려 생채기가 돌아나 침대시트처럼 눈물방울에 부딪혀 멍들어버렸다.

얼마나 울었던가. 계속되는 울음에 몸마저 지쳐 나는 결국 몸을 퍽 누여버렸다. 한참을 울다보니 어느새 하늘은 오렌지 빛을 띄우며 어둑해지고 있었다. 아, 또다시

네 생각이 난다. 나는 노을이 진 모습만 보면 늘 그날이 절로 생각이 났다. 세상이란 경계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쳤던 나를 그 애가 붙잡아주었던 그날. 뜨겁게 타오르던 노을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서로를 알아가던 그날.

그래. 나는 앞으로도 어딜 가든, 어느 곳을 보든 너를 떠올릴 터인데, 너를 잊으려 안달을 해도 곧장 너를 떠올리며 추억하겠지.

오늘은 저녁을 먹고 싶지 않았다. 허기가 저 쓰라린 배를 달랠 기분이 솟아오르지 않는다. 하지만 방금까지 눈물을 과다하게 흘려서 그런지 목과 혀가 텅텅했다. 물이라도 마셔야겠다고 생각하며 주방으로 몸을 이끌었다.

불이 꺼져있던 주방은 새하얀 등을 켜봐도 오늘따라 유난히 캄캄하고도 적막하게 느껴졌다. 설거지 바구니에 뒤집혀있던 컵을 쥐려하자 손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았다. 간신히 컵을 정수기로 옮겨 미온수가 나오는 버튼을 눌렀다. 주방과 거실에는 물을 쪼로록, 받는 소리만이 고요하게 울렸다.

물을 담은 컵에 입을 대자, 목이 많이도 말랐는지 별컱별컱 잘도 넘어갔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들이키니 한숨이 절로 나왔다. 역시나 아직도 무기력한 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당연히 고작 물 몇 모금으로 힘이 돌리가 없다. 하지만 지금은 이 무력감을 어떻게든 없애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다. 무얼 하고자 하는 기운이 없어, 기분전환에도 아무런 생각이 없다.

그래도 이 찻잔은 어떻게든 없애야겠다. 아까부터 몸 구석구석엔 대청소를 하며 뽀뽀 흘린 땀이 말라붙어있었다. 종일 눈물을 쥐어짜느라 몸 상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모양이다. 더 어두워지기 전에 빨리 씻어야겠다.

욕실에 들어서서 양치질을 시작했다. 칫솔질을 하며 거울을 보니 얼굴은 그새 가관이 되어있었다. 붉게 부어오른 눈 밑살과 코, 닳아내지 않고 내버려서 눈물자국에 뒤덮인 볼을 보자니 오늘따라 얼굴이 수척해 보였다.

개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내가 이렇게 망가질 수 있구나..... 작년에도 늘 느꼈지만 이번에 다시 한 번 뚜렷이 느끼는 것 같다. 편지하나에 내가 그리도 울 줄 누가 알았겠어. 그 생각을 하니 피식 힘 빠지듯 웃음이 새었다.

윗옷을 벗어 빨래바구니 안으로 던져놓았다. 왼팔 하박 안쪽을 보니 긴 소매에 가려졌던 흑등고래 타투가 보였다. 이 타투가 웬지 모르게 오늘따라 부질없어 보이는 이유가 뭘까.

아, 잠시 소스라쳤다. 가장 사랑하던 사람이 묻고 간 유일한 흔적을 보고 부질없다고 생각한 내가 낫선 것도 잠시, 살이 떨렸다.

온설이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도 그랬다. 세상을 떠난 온설이에게 미안해하고, 미워하고를 반복했던 나 자신을 보며 안쓰러워하기도 했지만 또 어느 순간엔 질겁함을 넘어서 혐오스럽기 까지도 했다. 그 감정을 오늘부로 또 한 번 느껴볼 줄은 몰랐다.

나는 또 무언가 떠오른 듯 살짝 등을 돌리며 거울을 응시했다. 거울에 반사되어

비친 내 오른 날개뼈엔 검은 나비 두 마리가 날개를 활짝 펴 날갯짓을 하고 있었다. 하나는 크기가 손바닥만 하고 무늬가 화려한데, 그 밑에 다른 하나는 크기가 그 나비의 절반정도에다 무늬가 단조로웠다. 왜일까, 오늘따라 이 타투들이 생소하게 느껴진다.

나는 애써 생각을 멈추고 옷을 다 벗어던져 샤워를 시작했다. 두피를 때리듯이 쏟아지는 물을 맞으면서 생각을 비워내고 싶었다. 물론 불가능 할걸 알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끈게 솟은 우울을 잠시라도 가라앉힐 수 있을 것 같았다.

아직 쌀쌀할 날씨라 그런지 해가 일찍이도 몸을 숨겼다. 샤워를 끝내고 머리를 말린 다음 바로 침대로 뛰어 들었다. 샤워를 하니 졸음이 눈을 마구 찢러댔다. 나는 내일 카페로 출근하기 위해 알람을 맞추려 핸드폰을 켜다. 그런데 핸드폰을 키자, 잠금 화면 가운데에 적힌 날짜가 눈에 들어왔다.

‘4월 11일 X요일’

나는 날짜를 보고 웬지 모를 위화감을 느끼다 이내 알아챘다. 곧 있으면 4월 16일, 온설이의 기일이다.

나는 벌써 일어나서 잠시 창가에 두었던 고래 목걸이를 조심스레 집어 두 손바닥 위로 포개었다. 그리곤 생각했다. 왜 이걸 온설이의 기일이 다가오기 얼마 전인 오늘 발견한 걸까. 단지 우연이라 하기엔 이 상황이 너무나도 미묘하게 다가왔다. 그 와중에 또다시 서글퍼지기 시작했다. 이놈의 눈물샘은 아직도 말썽이다. 여기서 또 울음이 터지면 내일은 꼴이 정말 못 볼 것이 될 것 같았다.

나는 애써 눈물을 참았지만 근질거리는 감정은 그대로였다. 그 감정은 자꾸만 내게 혼잣말을 심어줬다.

온설아, 설마 네가 죽은 지 사계절이 지났다고 알려주고 싶었던 거니? 아니면, 네가 영원히 숨을 죽이게 된 그 날을 기억해달라고 말해주고 싶었던 거니? 또 그게 아니면, 그냥 내게 인사를 하고 싶었던 거니? 혹시 나를 보고 싶었던 거니? 한 번이라도 너를 보러와 달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니?……

단지 두 손 위에 목걸이를 올려놓은 것뿐인데, 손 안에서부터 그 애의 특유의 온기가 느껴졌다. 언제 잡아도 따뜻했던 그 손. 추운 날엔 시리게 느껴지다가도 그 속에는 여전히 온기가 감돌고 있던 그 손. 늘 얼어붙은 것 마냥 차디찬 내 손을 녹여주던 그 아담하고 가는 손. 그래서 아까 너의 편지를 집었을 때 웬지 모를 온감이 느껴졌던 건 내 손이 그걸 네 손으로 착각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다.

그리웠던 온기가 손에 닿는 게 느껴지자, 역시나 피곤한 눈에 물기가 핑 돌았다. 아무래도 오늘은 이번 생에 너로 인한 가슴앓이를 가장 많이 한 날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다. 미안하다, 온설아. 친구가 오랜만에 안부나 물어보려 찾아왔는데, 그 친구의 친구란 놈은 질질 짜기나 하고 있고……

좀 있으면 눈꺼풀이 버티질 못하고 감아버릴 것 같았다. 나는 손에 있는 목걸이를 한 손에 꼭 쥐 채 몸을 뒤로 젖혔다. 이렇게 누워보니 온설이의 손을 맞잡고 잠을

정하던 때가 떠올랐다. 실제로 그런 기분도 들었다. 등이 시트에 닿자마자 졸음이 절로 쏟아졌다. 내일 사장님께 온설이 기일 날 휴가 내주실 수 있는지 물어보아야지. 그렇게 나는 눈을 감았고, 두 눈을 붙임과 동시에 광대를 타고 눈물방울이 흘렀다.

2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풀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기만 하면 끝이지만 안으로 들어가고픈 심정은 눈곱만큼도 없다. 집으로 들어가는 순간, 적요한 실내의 공기가 맞이할지, 알코올로 인한 격분에 깃든 손찌검이 맞이할지 늘 노심초사를 하게 만든다. 가장 아늑하게 느껴야 할 공간이 공포감을 자극하는 공간으로 뒤바뀐 건 왜일까. 늘 이렇게 식은땀을 달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

제발…… 아무 일도 없으라. 아무 일도……

코로 숨을 들이켠 뒤, 입으로 그 들이마신 공기를 모조리 내뿜었다. 요즘에는 심호흡을 하는 일이 잦았지만 아무리 번번이 해봐도 속이 시원한 적은 드물었다. 백 번, 천 번을 반복해도 목구멍은 여전히 뻗뻗함을 유지할 것이다.

하지만 계속 바깥에만 있을 수도 없었다. 예전 같았으면 친구에게 하루만 재워달라며 연락을 주기라도 했겠지만, 지금은 주변에 친구마저도 없어서 집이 아니면 숨을 돌리거나 잘 곳도 없었기에 내가 다닐 수 있는 경로는 오로지 학교나 등하굣길, 아파트 이외에는 포함되어있지 않았다. 지금처럼 현관 앞에서 몇 번을 더 지체해도 선택은 늘 똑같은 것이다.

잠시 망설이다 현관문을 열어 틈 사이에 얼굴을 가까이 하고, 눈을 굴리며 집 안을 둘러봤다. 문을 열어도 고요함은 변함이 없자 겨우 현관으로 몸을 밀어 넣었다. 신발장에 밑창을 붙이자 발바닥부터 전해져오는 냉기가 유난히 시렸다. 거의 매번 느끼는 긴장감이지만 익숙해지기는커녕, 좀체 사그라지는 기미마저 보이지 않았다.

조심히 신발을 벗은 뒤, 최대한 발소리를 죽이며 안방 앞으로 가, 살짝 열려있는 문 틈새에 살며시 눈을 들이밀었다. 킁킁한 방 안을 빙 둘러보자 침대에 누워 곤히 자고 있는 아빠가 보였다. 다행이게도 오늘은 음주를 하지 않은 건지 바닥에 술병이 보이지 않았다. 나는 아빠의 상태가 어떤지 확인을 끝내고 안방 문을 조심히 닫은 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왼쪽 가슴께에 슬며시 손을 붙이자 땀이 고인 손바닥 너머로 심박이 느껴졌다.

내 방으로 도착하자마자 바로 문을 잠갔다. 가방을 방바닥에 아무렇게나 던져놓고 침대에 뛰어들자 서늘하게 식은 이불의 촉감이 온몸을 감돌았다.

교복을 갈아입지 않은 몸이었지만 이대로 누워있고 싶었기에 잠시 눈을 붙이기로 했다. 매주, 하루의 절반 이상, 학교에서 가만히 미래에 도움이 될 법한 내용이라곤 먼지만큼도 없는 수업을 들으니 몸상태는 이리저리 쭈시고 늘 찌뿌둥했다. 그래서 늘 집에만 오면 침대를 찾게 된다. 하지만 막상 눕는다 해도 편안한 감정이 드는

것은 아니었다. 나는 이렇게 폭력과 술내가 오가는 집안에서 늙길 원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럴 때면 ‘왜 살지’, ‘내가 왜 이렇게 된 거지’라는 식의 술한 우문들만이 구름처럼 머리 위로 비행했다. 생각 할수록 정말 우울하리만치 억울한 상황이다. 왜 형편이 이렇게 바뀌어야 했을까. 날마다 회의감을 달고 집을 드나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일 년 전까지만 해도, 내게도 엄마가 있었다. 다른 엄마들과 다를 구석 없이, 지극히 평범했던 그런 엄마라는 존재가.

엄마는 아빠와 같이 꽃집에서 일을 하셨다. 그러므로 꽃의 종류는 물론, 꽃말까지 포함해 웬만하면 식물에 대해선 모르는 게 희박한 사람이었다. 특히나 엄마는 허브를 굉장히 좋아했으며, 늘 우리 집 베란다에는 기다란 파란 화분에 로즈마리가 심어져 있었다. 엄마는 조금만 문질러도 향이 났다는 이유로 로즈마리가 좋다고 했고, 보기만 해도 향이 절로 나는 것 같아 웃음이 핀다고 하셨다. 나는 엄마가 그만큼 좋다고 하시니 나도 로즈마리가 꽤나 마음에 들었다.

지금 생각하면 짧게 느껴지는 시간인데도 엄마와의 추억은 가늠을 못할 정도로 넘쳐났다. 늘 이름이나 모양새가 드문 식물은 엄마의 입을 통해서 알게 된 것과 같이, 내가 살면서 보고, 듣고, 느낀 모든 것들은 엄마와 연결되어있었다. 나는 그 것들을 몸소 느끼게 해준 엄마를 지극히도 사랑했다. 그 때까지만 해도 나는 부모님과 함께 꽃집에서 꽃을 가꾸며 지내는 미래를 예상하며 꿈꿨다. 하지만 그 기대는 예상치 못한 찰나에 처참하게 동강이 났다.

내가 열일곱 살을 앞두기 전, 갑작스레 엄마와 아빠 서로간의 충돌이 잦아졌다. 부모님은 내가 눈앞에 있을 때면 서로에게 등을 보이고 있어도 절대로 싸우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지만, 내가 잠에 든 사이에는 이때다 싶어 서로 물어뜯기 바빴다. 방안에 불을 끄고 누워있을 때면 문 밖으로 부모님의 악감이 날선 아우성만이 들렸다.

모든 이야기가 기억나는 것은 아니지만, 내 고등학교진학에 관련된 것도 있었고, 같이 일을 하고 있던 지라 실업에 대한 말싸움도 있었는데, 좀 더 시간이 지나자 이젠 그냥 서로가 보기 께럽다며 싸우는 등, 날마다 원인이 제각각으로 달랐다. 그럴 때마다 나는 귀를 막아버리거나 이불을 뒤집어쓰곤 했었다.

부모님은 다투는 순간마다 내가 잠에 폭 빠져있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처음부터 눈이 뜨인 상태거나 싸우는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깬 것이 대다수였다. 그럴 때마다 하는 수 없이 주고받는 말들을 귀에 담을 수밖에 없었는데, 항상 끝마무리는 “애 자니까 나중에 말하자”는 엄마의 애매한 말로 싸움의 막을 내렸다.

처음엔 그 말이 조금 어이없게 받아들여지긴 했다. 목이 터져라 고래고래 질러가며 싸웠으면서 그제야 자는 사람을 생각하다니, 엄마의 두 얼굴이 열여섯 살의 내겐 다소 어리둥절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나에게 대한 엄마의 최선의 배려였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아빠는 결코 하나의 일을 쉽게 넘어가지 않는 성격인데도 그런 아빠를 체지하려면 그게 최선이겠거니 싶었다.

나는 아직도 부모님이 왜 서로만 보면 으르렁거렸던 건지 예측할 수 없었다. 부부 싸움의 원인이 꼭 집에서 발생하는 법은 없으니 밖에서 무슨 일이 생겨서 싸우는 건지, 아님 말 그대로 그냥 서로가 점점 보기 싫어져서 다툼을 잇는 건지 가족인 나조차도 알지 못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굳이 그 싸우는 소리를 듣지 않았어도 곧 부모님의 관계가 서먹해졌다는 걸 알아챌 수 있을 것 같았다.

몇 번의 대판싸움이 이던 일주일이 조금 지난 뒤, 방과후를 끝내고 귀가를 하는데, 예전에는 조금이나마 반겨주었던 엄마가 집에 돌아오니 소파에서 티비를 보며 “왔니?”하고 묻고는 그 다음부터 입을 열지 않는 무심한 행동을 보였다. 하지만 무엇보다 신경 쓰였던 건 아빠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늘 엄마와 같은 시각에 퇴근을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간에 이어졌던 싸움을 생각하니 그날따라 불안감이 새파랗게 치밀었다.

나는 결국 불안을 떨치지 못하고 엄마에게 물었다.

“아빠는?”

엄마가 심드렁하게 툭, 던졌다.

“몰라. 술 땡기나보지.”

그 ‘술’이라는 단어에 심장이 덜컹, 내려앉는 감각이 몰아쳤다. 그동안 술에 눈도 붙이지 않던 아빠가 웬일로 마다하지 않고 술을 마시러 간 걸까. 심지어 엄마는 아빠가 혼자란 걸 알면서도 왜 체지하지 않았던 걸까.

나는 속이 미칠 듯이 쓰라려 밥이 전혀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았다. 내 머릿속에선 그 상황에서 재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만이 딱하니 자리 잡았기에, 묻고 싶은 것이 산더미임에도 불구하고 엄마를 회피했다.

지금은 그 때의 나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나 자신을 타이르고 싶었다. 내가 문제를 바로잡을 수는 없어도 나도 자식인데, 핏줄인데 집안에서 일어나는 부부끼리의 갈등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볼 수 있을까. 무엇이든 물어본다 해도 엄마가 쉽게 대답해 줄 거라는 개념은 없지만, 그때 내가 엄마의 편에 조금 더 기울이며 도움을 주었다면 매듭 하나라도 풀리지 않았을까 되뇌며 후회한다. 하지만 나는 그 찰나에 손길은커녕, 오히려 그 공간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택했다.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옷을 갈아입은 다음 핸드폰과 이어폰, 지갑만 챙겨 잠시 집을 벗어나기로 했다. 그리곤 현관문을 열면서 어렵했다. 엄마에게 나사 하나하나가 조금씩 풀렸다는 것을.

그 때는 한창 쌀쌀할 날씨가 그런지 거의 6시만 되도 하늘이 푸르스름해졌다. 핸드폰에 플래시를 켜고,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으며 아파트 주변에 있는 공터를 돌아다니고 있었다.

점점 집안을 감당하기 힘들어지니 잠깐 밖에서 음악을 들으며 걷는 시간마저도 나에게서는 꿀처럼 달콤했다. 그러다 문득 무언가 떠오른 나는 핸드폰을 키고 친구와의 대화창에 들어가 키보드를 한 자 한 자 푹푹 눌러 보냈다.

‘야 나 오늘 니네 집에서 자고가면 안됨?’

‘헐? 이 시간에 숙박을 허락받으려 하다니, 당돌한 놈...’

‘먼 소리야, 아직 6시구먼... 아니이이이 썩든 가능하냐고’

‘아니 난 괜찮긴 한데 왜?’

‘전에 말했듯이 올 엄맘빠 싸우심... 허구한 날 싸우니까 도저히 집구석에 못 있겠다... 그래서 나 지금 밖이야... 손 열어 디질 것 같음ㄷㄷ’

‘으응... 일단 부모님한테 물어볼게’

‘헐ㄹ 야 땡큐!!!! 고맙고맙♥♥ 역시 마이 프렌드πππππ’

그렇게 쓰고는 토끼가 커다란 하트를 껴안는 이모티콘을 보냈다. 나는 굉장히 들뜬 마음으로 빨리 긍정적인 답변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한참동안 채팅화면을 뚫어지게 보고 있자, 드디어 친구에게 답장이 왔다.

‘야, 쓰리ππ 오늘은 안 된다 하시궁... 담주에 괜찮다는딩’

역시 운도 없었다. 내가 원하던 답변을 받지 못하자, 이내 이 상황이 부질없음을 깨닫고 알겠다면 문자를 남겼다. 아쉬운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라앉히려 잠시 멈춰둔 음악을 다시재생하며 공터를 터덜터덜 돌아다녔다.

내가 나간 사이에 아빠가 귀가를 마친 건지 현관문 틈으로 매몰찬 소리들이 새어 나왔다. 보통 늦은 밤이나 새벽부터 다투기 시작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지만 그때는 내가 집에 없던 상태라 부모님은 저녁부터 욕박을 지르기 시작했다. 그 소리를 듣다보니 들어가고픈 심정이 더욱 식어갔다.

나는 엘리베이터 옆에 가만히 앉아 아우성이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귀를 단단히 막고 잠잠해질 때까지 잠시나마 기다렸다. 곧이어 집안에서부터 문을 세차게 쿵, 닫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그 여운이 잠잠해지는 동시에 사람의 음성도 끊어졌다. 순간 엄마의 모습이 뿌옇게 떠올랐다. 내가 자리를 비울동안 혼자서 사투를 벌이고 있었을 엄마가 유난히 걱정되어 현관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이내 결심한 듯 문을 열었다.

문을 열자 현관 앞에 놓인 꽤나 큰 사이즈의 구두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아빠의 것이었다. 하지만 거실 쪽으로 몸을 기울여 봐도 아빠의 모습은 머리카락마저 보이지 않았고, 소파에 힘없이 덩그러니 앉아있는 엄마의 모습만이 보였다.

엄마의 모습은 마치 넋을 모조리 빼앗긴 듯했다. 눈은 초점을 잃고, 입은 반쯤 열린 채 꼬리가 축 처져있었고, 팔다리는 관절인형마냥 이리저리 늘어져있는, 생전 처음 보는 엄마의 모습이었다. 겨우 허우적거리다 이내 지쳐 심연에 잠긴 모양새와 매우 흡사했다. 심지어 몸싸움마저 벌인 듯 머리카락과 옷이 너털거렸고, 팔뚝과 목 부근에 불그스레한 자국이 남아있었다.

순간 심장이 옥죄이는 통증이 올라왔다. 엄마가 저렇게 너털너털하게 변해가는 동안 나는 밖에서 판전이나 부리고 집에서 도망칠 생각이나 했다니, 순식간에 불효자식이 된 기분이었다. 죄악감이 마음속에 깊숙이 박혔다.

“엄마?……”

괜찮냐는 말부터 꺼내야 할 텐데, 누군가 목구멍을 가로막은 듯 그 다음 말이 이어지지 않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소파 쪽을 향해 다가갔다. 하지만 아직도 엄마와의 거리는 몇 걸음 더 차이가 났다. 엄마는 눈만 굴리며 나를 슬쩍 보더니 입을 열었다.

“피곤하지? 이만 자.”

엄마는 그렇게 말하곤 베란다로 걸어갔다. 엄마의 걸음을 따라 눈길을 옮기자 베란다 구석이 너저분하게 얼질러져있는 광경이 보였다. 그곳을 유심히 살펴보니 로즈마리가 심어져있던 파란 화분이 엮어진 채로 흙과 허브들을 뺀어내고 있었다. 허무감이 흙과 같이 와르르 쏟아졌다. 엄마와 이어져있는 실과 같은 존재가 무참히 흩어진 모양새를 보니 기분이 어질렀다.

나는 멀뚱히 서있을 수만은 없었기에 재빨리 화장실로 뛰어갔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그렇다고 그 상황을 받아드린 것은 아니었다. 단지 충격이 녀과 같이 내 눈물까지 집어삼킨 게 아닐까 싶다.

컵에 든 찻술을 잡으려 해도 손이 도통 따라주질 않았다. 나는 허공에서 허우적대는 손을 바라보며 미심쩍은 감정을 느꼈다.

내가 원래 이렇게 정신이 멍한가……?

양치를 마쳐도 짹짹한 기운은 날아가지 않았고, 찬물로 얼굴을 아무리 적셔도 정신이 번쩍 깨지는 기분이 오르지 않았다. 무심코 앞에 놓인 거울을 바라보니, 거울 속에는 앞머리에 물방울이 송골송골 매달린 채로 병 찌르는 내가 비춰지고 있었다. 아직도 몽환에 갇힌 듯이 눈가가 몽롱했다. 방금 전의 충격은 찬물의 찬 기운을 외면하듯 여전히 내 정신을 무지하게 찢었다.

세안을 끝내고 화장실을 벗어난 뒤, 최대한 눈을 가늘게 뜨며 다급히 방으로 들어갔다. 거실 쪽이 조금이라도 시야에 들면 다시 어질러진 화분이 보일 것 같아서. 그럼 정말 역장이 붕괴될 것 같았다.

방으로 들어가자 하체가 터덜터덜, 절로 침대를 찾아 헤맸다. 긴장이 피곤함으로 변질된 듯, 침대에 등을 붙이자마자 뒹굴어떨어질 것을 예상했다. 그런데 막상 누워보니 예상 밖이었다. 분명 정신은 아득한데 왜 잠은 오지 않는 걸까. 심지어 어둑한 방 안인데도 불구하고 눈앞이 어수선했다. 캄캄한 천장에 언성을 높이며 서로를 죽일 듯이 덤비는 엄마와 아빠의 음성과 모습이 그려졌다. 그 다음엔 아빠가 엄마에게 폭행을 가하는 그런 불순한 생각마저 들었다. 엄마보단 아빠가 더욱 힘을 쓰는 데에 능숙하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적은 것도 아니었으니 상상이 더욱 쉽게 갔다.

그때 나는 무엇도 떠올리고 싶지 않았기에 당장이라도 뇌를 꺼내어 던져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생각은 걸음을 멈추는 법을 몰랐다.

화해할 생각을 하지 않을 거면 차라리 이혼이라도 해야 일이 풀리진 않을까. 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그렇게 날선 감정만 앞서는 걸까. 왜 아직도 서로간의 벽이 무너지지 않는 걸까. 내 생각은 안 하나?

나는 그렇게 끊임없는 물음들을 세어가며 빨리 눈이 감기기를 기다렸다.

몇 주가 지난 데도 여전히 엄마아빠는 일주일에 대여섯 번 정도 싸움을 일으키고 완전히 서먹한 사이가 됐다. 그리고 조금씩 나와도 서먹해졌다. 초반엔 무슨 일이나고 묻기라도 하고, 왜 집에서 싸우고 그러냐고 화도내고 싶어 했지만 이제는 나머지도 눈을 마주치기만 하면 비위가 쓰러 기피하게 되었다. 심지어 엄마와 아빠가 서로 언성을 세우며 싸워도 면역이라도 생긴 건지 아무런 감정도 샘솟지 않았다. 전쟁처럼 느껴졌던 싸움은 이제 귀만 아려오는 개싸움과 불과하다 생각했다. 종종 이런 내가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내 머릿속에는 그 많던 걱정은 어디가고 적당히 했음 좋겠다는 생각이 앞섰다. 예전에는 나라도 변치 않았으면 싶었는데도 반복되는 일상에 마음은 점점 후줄근히 변해갔다. 엄마는 이런 나에게 최대한이라도 서그럽게 말을 붙여보았지만, 분명 살면서 꾸준히 봐왔던 모습인데도 나는 익숙하게 받아내지 못하고 외면했다. 하지만 큰 걱정이 생겼다.

아빠가 말로 안 되면 몸으로라도 대책한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엔 때때로 엄마가 마음에 걸리기도 했다. 심지어 가끔씩 차마 가려지지 않은 살 군데군데 빨갛게 부어오른 것을 본 적도 있다. 그간엔 전혀 보이지 않던 흠이라 맞기라도 한 건 아닐까 의구심이 들기도 했다. 어딘가에 부딪히며 생기는 자국과 다름없었지만 급속히 늘어난 자국에 수상함은 짙어지기만 했다.

그렇게나 집안은 심각한 관계로 변져나갔지만 아무도 경각심을 머금지 않았다.

내가 열일곱이 된 후 우리가족은 고등학교 입학 을 위해 이사를 갔다. 처음으로 고교로 입학을 하니 없던 긴장감이 몰렸다. 친구관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도 없었지만, 공부에 대한 압박이 특히나 컸다. 성년에 가까워지다 보니 공부를 잘해야 원하는 직업을 얻거나 바라는 미래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극단적인 신뢰와 공부라도 잘해야 식구들의 사이가 조금은 원활해질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감이 뒤섞여 나를 위압했다.

입학식 이주 전, 우연히 엄마가 심리 상담을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불을 가지러 안방에 들르자 서랍위에 놓인 처음 보는 진단지를 발견했다. 좌측 상단에는 심리 상담센터라는 문구가 적혀있었고 그 밑엔 담당선생님 명 또는 우리 엄마의 기본정보가 나열되어있었다. 엄마가 상담을 다닌다는 것을 알기 전, 나는 엄마가 얼마나 심적으로 괴로운지 조금이나마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심리를 내보이는 그 증표가 눈앞에 나타나니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손이 자석에 이끌리듯 종이로 뻗었다. 손에 집어보니 용지는 하나가 아닌 여러 장

을 클립으로 이은 것이었다. 기본정보가 빼곡한 앞장을 대충 눈으로 훑고 뒤로 넘겨보니 영문 모를 그래프가 그려져 있었고, 그 밑에는 가정에서 싸움이 인다는 사실과 엄마의 심리적 행동을 분석한 것이 적혀있었다. 갑작스레 눈물을 터뜨린다든지, 손가락을 꼼지락 댄다든지, 엄마의 불안감을 나타내는 모습을 그대로 적어놓았다.

그렇게 차차 읽던 도중, 갑자기 가슴을 관통하듯 어떠한 문장이 마음에 박혔다.

‘본인의 심정에 대한 이야기나 자식에 대한 염려를 꺼낼 때도 무수하다.’

심장을 옥죄이게 만드는 부분이었다. 엄마는 마음이 잔해가 된다 해도 나에게 대한 신경은 꼭 가슴에 담아둔다는 것을 그제야 빼곡히 느꼈다. 나는 그저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게 무관심한 부모라며 둔한 판단을 내려왔다는 깨달음이 가슴을 짓눌렀다. 결코 희박하지 않은 통증에 입에서 탄식이 새어나왔다. 나는 또다시 뒷장을 슬쩍 뒤집어보려 했지만, 넘길수록 부푸는 초조한 마음에 그만두기로 했다. 막장에 도달할수록 어떤 무거운 문장들이 내게 비취질지, 과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내용일지 겁이 치솟았다. 나는 두 번째 장을 마지막으로 전단지에 등을 돌렸다.

부모라는 건 자녀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존재라고 늘 생각해왔지만 내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던 사람 중 하나는 가족에게 버럭대며 등을 돌리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깊은 우울로부터 벗어나지 못해 결국엔 나와 거리가 생겨버린 사람이었다. 이런 점을 되짚어보면 내가 참 태생에 운이 없던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곤 했다. 차라리 내가 원인이면 좋으련만. 정말 내가 문제냐고, 나만 없으면 풀릴 문제냐고 묻고 싶었지만 오고가는 폭언 그 새로 끼어들어 물을 용기도 없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엄마도 나와 마찬가지로 유일하게 기댈 사람을 잃어버린 셈이었다. 옛적에 언제든 네 편이 되어준다던 그 사람은 언제나 폭언으로 서로를 멍들게 하는 적인과도 같이 되어버렸으니. 심지어 엄마는 밤마다 그 사람과 맞서야만 하니. 그 사람으로부터 나까지 피해가 가지 않게 해야 하니. 그런 점을 생각하면 나 보다는 오히려 엄마가 더 절실한 상황이지 않나 싶었다. 나는 오히려 엄마에게 고마워해야 할 입장이었는지 모른다. 그리고 내가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어리석게도 그걸 알아채지 못했을 뿐.

5월 중순 즈음이었다. 나는 교과서를 보며 올해는 벚꽃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에 한숨지었다. 어쨌면 내년마저 꿈도 꾸지 못할 수도 있다는 예견과 함께.

하교를 하면서도 그 허무한 감은 쉽사리 사그라지지 않았다. 다만 이런 점도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점차 가라앉을 거라 염원하며 애써 지워내려 했다.

그래. 다 크면 나도 일해서 내 돈 내가 벌 수 있을 거고, 엄마아빠랑 떨어져서도 알아서 지낼 수 있을 거고, 벚꽃구경이든, 바다든, 다른 휴양지든 내가 알아서 갈 수 있을 테고. 그렇게 내가 소망하는 미래를 나열하던 도중 문득 예전에 꿈꾸던 미래가 떠올랐다.

부부싸움이 번지기 전까지만 해도 나의 훗날엔 늘 부모님이 그려져 있었다. 내가

무얼 보든, 무얼 먹든, 무얼 이루든 늘 곁에는 엄마아빠가 곁에 있을 거라고, 어린 마음의 나는 굳게 믿었다. 그런데 그렇게 길게 이어지던 소망은 어느 새 완전히 변질된 것이다. 그 생각이 들자 머리가 창백해졌다. 엄마아빠가 변해가는 사이 나도 뒤따라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하지만 그저 성장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오는 현상이라 단정하며 그 창백한 기분을 넘겼다.

소파에 누워서 폰을 하고 있던 도중 여덟시 즈음에 아빠가 돌아왔다. 그런데 곁에 엄마가 보이지 않았다. 서로 귀가시간이 다를 때는 잤지만 엄마가 늦는 경우는 생소한데다, 상담진단서를 보고 난 후 엄마에 대한 걱정이 혹, 늘어서 인지 아무렇지 않게 여길 수 없었다.

“엄마 술 마셔?”

엄마가 늦는 경우엔 꼭 술을 한바탕하는 날이었기에.

“설마. 차까지 가져갔는데.”

아빠의 대답에도 여전히 미심쩍은 마음이 간질거렸지만, 애써 무시하며 씻으러 화장실로 갔다.

욕실을 나오며 무심코 시계를 보니 50분이 넘었다. 곧 아홉시임에도 불구하고 소리도 없이 나가버린 엄마에 대한 걱정이 넘쳐흘렀다. 나는 핸드폰을 집어 전화를 해볼까 잠시 고민했지만 이내 관두었다. 한동안 연락은커녕 조금의 대화도 오간 적도 없던 사이인데 이제야 근심을 표해봐야 무슨 소용일까. 결국 아무 탈 없이 귀가하기를 바라는 것 밖에 없었다.

나는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린 뒤, 바로 잘 준비를 하러 침대로 갔다. 눈을 감고 잠을 청하려 하자 방문너머로 통화중인 듯한 아빠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존댓말만 연달아 하는 걸 보니 엄마는 아니었다. 나는 피곤함에 찌든 몽롱함 때문에 통화내용에 귀를 기울이지는 않았다. 어차피 “예, 예.”하는 응답만이 다수였기에 굳이 귀담을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 통화가 마무리에 가까워질수록 대답이 점점 다급해지는 것 같다는 김새가 들었다.

나는 어느 정도 이상함을 눈치 채고 거실너머에 귀를 세웠다. 그러자 아빠가 황급히 뛰는 듯한 발소리와 함께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무슨 일인지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누구에게 전화가 온 건지, 그 통화 내용이 뭔지 조금도 들은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나와 관련된 일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했다. 아빠가 저렇게 동요하는 것을 보면 분명 본인과 관련된 일이겠지 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렇게 생각하던 찰나, 눈꺼풀은 졸음을 버티지 못해 이내 덮이고 말았다.

다음 날 아침에도, 학교를 다녀온 뒤에도, 엄마가 보이지 않았다. 도통 말을 섞진 않았지만 집에서는 늘 보이던 사람이 한순간에 집을 비우니 생소한 공허함이 공기를 가득 채웠다. 그제야 걱정이 머릿속을 메웠다. 마음고생이 병으로 도진 건가. 아님 지난 밤 밖에서 무슨 사고라도 벌인 건가.

잠시 생각에 빠져있던 그때 핸드폰이 진동을 울렸다. 아빠로부터 문자가 왔다. 작년부터 아빠와의 연락이 드물었던 내게 아빠의 문자는 뜻밖이었다. 메시지 창으로 들어가 내용을 확인해보니 나는 소스라치듯 눈살을 찌푸렸다.

‘오늘 잠시 얘기 좀 할까.’

그 말이 웬지 모르게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그동안 대면하는 것도 하늘에 별 따기와 비등했던 사람이 무슨 일로 대화시간을 내는 것일까.

나는 그 전까지 아빠와 둘만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었다. 심지어 그때의 나는 아빠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드러낸 상태였기에 한시라도 눈을 맞추기를 두려워했다. 아빠의 눈동자 속에 내 안면이 비치는 모습을 상상만 해도 끔찍했고, 무엇보다 엄마에게 그토록 버럭 대던 사람이 과연 나는 예외로 대할까 의문이었다.

아빠가 과연 정중히 이야기를 이어나갈까. 갑자기 중간에 혈압이라도 올라서 고성을 지르면 어떡하지? 아니면 엄마한테 저지른 것처럼 도중에 손이 나가면 어떡해?

내 발은 불안감에 조종당하듯 거실 바닥을 이리저리 휘저으며 손톱을 물어뜯었다. 집안과탄의 큰 원인이었던 아빠를 생각하니 예전에 고치던 손톱 물어뜯기 같은 버릇도 절로 행해졌다. 혹은 이렇게라도 하면 시간이 느리게 가진 않을까하는 마음에 중간 중간 시계를 뚫어지게 쳐다보기도 하고, 좋아하는 음악을 컷가에 담아보기도 했지만 불안은 쉽게 분해되지 않았다.

긴바늘이 7을 조금 넘기자 도어락을 푸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소파에 누이고 있던 몸을 일으켰다. 현관문이 슬며시 열리는 게 보이자 침이 ‘꿀꺽’ 넘어갔다. 곧이어 아빠가 몸을 드러냈다. 아빠의 낮빛이 평소보다 창백해 보였지만 아랑곳 하지 않고 서늘한 말투로 찢렸다.

“용건이 뭔데.”

아빠는 일단 앉아보라며 식탁을 가리켰다. 나는 미심쩍은 표정을 감추지 않고서 자리에 앉았다. 기류에 흐르는 긴장감이 식은땀처럼 아빠와 나를 적셨다. 내 맞은편에 앉은 아빠의 얼굴을 보니 긴장 때문인지 역겨움 때문인지 당장이라도 구토가 쏠릴 것 같았다. 가능하다면 차라리 그 상황을 뛰쳐나가고 싶었다.

아빠는 입술을 열었다, 단았다 반복하며 첫 마디를 망설이고 있었다. 나는 그런 모습마저도 곱게 봐줄 수 없었다. 결국 내가 먼저 대화의 첫 발을 내딛었다.

“엄마 아프지?”

그러자 아빠는 눈썹을 올리며 의외란 듯 나를 쳐다보았다. 아빠가 당황한 모습을 보이는 건 처음과도 같이 오랜만이였다. 나는 그러든 말든 말을 이었다.

“나는 엄마가 심적으로 얼마나 병 들었는지 알아. 싸운지 거의 몇 개월이 지났는데 어떻게 정신적으로 버틸 수 있겠어. 술에 강하지도 않아서 잘 먹지도 않던 사람이 술 마시는 날이 잦아졌는데, 어떻게 변한 걸 모를 수 있겠어. 그래서 언젠가 탈이나겠지 예전부터 예상했어. 술병이든, 정신적으로 지쳐서 쓰러지든. 그보다 엄마 몸상태가 조금 염려되는데, 엄마는 어때?”

아빠는 울컥한 듯 내가 이야기를 늘어놓을수록 점점 고개를 떨궜다. 덩달아 나도

목이 울컥하여 뻗뻗해졌다. 나는 애써 눈물을 삼키고 아빠에게 다시 한 번 물었다.

“엄마 뭐래? 엄마 어디 아프데?”

“엄마가 교통사고 났어.”

나는 그 말에 한기를 느껴 그대로 얼어붙었다. 누가 내 목을 조이듯 음성조차도 나오지 않았다.

“음주운전이 원인이었다더라고. 전봇대에 운전석이 손상돼서 엄마도 전신에 부상을 입었고…… 덧붙여 말하자면 혜야, 이제 엄마는 볼 수 없어.”

내 이름을 담아 말하는 아빠에게서 혐오감이 피었다. 나는 그 이상을 듣고 싶지 않아 귀를 손바닥으로 완전히 덮어버렸다. 그럼에도 아빠는 곳곳이 말을 전하기에 힘썼다. 귓구멍과 손바닥 틈 사이로 아빠의 목소리가 울렸다.

“그래서 내일부터 모레까지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그때까지 잘 버티줄 수 있을까?”

“그럼 나도 뒤져버리게 그냥 같이 죽지. 왜 나더러 버티라 마라야!”

엄마를 서서히 죽여 놓고서 이제 와서 내 상태를 묻는 것이 어이없었다. 결국 서서히 끓어오르는 화를 억누르지 못하고 아빠에게 고성을 질렀다. 눈물이 멈출 새도 없이 시뻘건 눈을 타고 떨어졌다. 끝까지 고집만 내세우다 가정을 지켜내지 못한 사람이 내 혈연이라는 사실이 매스꺼웠다. 나는 그런 사람과 같은 공간에 발을 붙이기도, 같은 공기를 마시고 싶지도 않았다.

흥분에 의해 불규칙해진 호흡이 쉬이 가다듬어지지 못하자 핸드폰도, 지갑도, 아무 것도 챙기지 않은 채 황급히 집을 나왔다. 아파트를 벗어나는 순간까지 아빠의 절망으로 도포된 낮빛이 지워지지 않았다. 나는 그 표정의 의미를 파고 들수록 아빠가 얼마나 최악인지 몸소 느꼈다. 지난날을 돌이키며 회개하는 표정이 아닌 엄마를 잃고 나서야 보이는 자신의 까마득한 행보에 대한 좌절감에 가까웠다. 그 상황에서 도 제 심정만 앞세우는 것이 분명했다.

결국 멀리 던지도 못하고 20분 정도 걸다가 다시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핸드폰은 가지고 올 걸……

도시의 땅을 후끈하게 달구던 해는 어느새 오렌지마냥 눈부시게 품을 내고 있었다. 햇빛을 쬐운 도로와 벽돌로 지은 타일들이 펍이나 조화로워 또다시 눈물이 눈물샘을 타고 올랐다. 아직도 압박하듯 짝 막힌 속을 풀어내기 위해 자연스레 흘리게 내뿜었다.

내 앞으로의 길도 이렇게 찬란하게 눈부시면 좋으련만.

나는 쓸데없는 기대를 품으며 집으로 돌아갔다.

엄마가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이틀 동안 장례식이 이어졌다. 양쪽 귀에서 울리는 통곡소리에 내 머리는 지진이 일어나듯 파동이 일었고, 영정사진 속으로 보이는 인위적인 미소가 왠지 모르게 섬뜩해 내 눈은 바닥을 향해 떨어질 수밖에 없



었다. 장례가 치러지는 그 공간에 들어설 때마다 내 숨통에 막을 친 듯 위압감이 얹혀졌다. 나는 어떠한 말도 내뱉고 싶지 않아, 친척들이 말문을 붙여도 내내 입을 다물고 있었다. 친척들은 나의 그러한 행동에 그러려니 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면 따듯한 날씨에도 서늘한 공기를 유지하는 집이 아빠와 나를 맞아주었다. 그리곤 운전해야 된다고 장례식장에서 술을 거부한 아빠는 집에 오면 맥주든 소주든 손에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점점 이성과 멀어져가는 아빠의 모습을 본 나는 더 이상 아빠가 가정파탄의 원인인듯, 주정뱅이든, 배신자든 무엇이 되든 전혀 신경을 두지 않기로 했다. 내가 자의로 다짐한 것이 아닌 내 마음이 절로 그렇게 돌변했기에 그러한 방향을 선택한 것이다.

밤이 되면 침대 위로 꿈쩍도 하지 않는 몸과 달리 머릿속은 혼잡했다.

엄마는 정말 술이 문제였던 걸까. 알코올에 정신이 팔려서 죽고 싶던 충동을 억누르지 못한 게 아닐까. 그래서 본능적으로 차를 들이박은 게 아닐까. 술을 마신 이유도 맨정신일 땐 스스로 목숨을 잃는 게 두려워서 술로 이성을 박살시킨 게 아닐까.

나는 제정신으로는 함부로 떠올리지 못할 상상들을 침대에서 실컷 반복했다. 그제 내 정신을 망가트리려고 좇먹는 행위라는 걸 알면서도 중단하려 애쓸 때마다 더욱 생생히 되풀이되었다. 그러다 이내 지쳐 잠에 들기를 이틀 동안 연달았다.

장례식을 다 마친 후, 며칠이 지나 아빠도 돌변하기 시작했다. 아니, 어쩌면 그때부터 서슴없이 본색을 드러낸 것일지도 모른다.

본격적으로 손찌검을 시작하기 며칠 전 아빠는 나와 마주치기만 하면 작게 욕을 지껄이기 시작했다. 처음엔 그런 행동이 꺼림칙할 뿐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반복되는 모습에 아빠에게 지긋지긋함이 쌓였다. 그 후 나는 아빠가 어떻게 대하든 간에 눈길을 주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빠가 곤히 자고 있던 나의 등을 발로 걷어찼다. 그 순간 벽에 팔꿈치와 무릎이 충돌하는 것을 느끼며 정신이 번쩍 났다. 나는 잠결에 벗어나지 못한 상태로 어떻게든 상황을 파악해보려했다. 하나 감각했던 건 술 냄새가 코를 찔렀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더 이상 파악하기도 전에 머리통에 손이 날아왔다. 얼마나 힘주어 때린 건지 “악!”하는 소리가 팍, 하는 소리에 묻힐 정도였다. 나는 그제야 비몽사몽한 정신을 깨트리려고 몸을 최대한 웅크렸다. 아빠는 그러든 말든 이유를 표하지도 않은 채 폭행을 가했다. 아빠의 이유를 모를 폭력은 그간 일어났던 불의들이 순식간에 묻혀버릴 만큼 매서웠다. 갑작스레 닥친 가학에 나는 속절없이 폭력이 그칠 때까지 받아낼 수밖에 없었다.

더 이상 맞지 않은 구석을 찾아보기 힘들 때 쯤, 아빠는 분이 풀렸다는 듯 한숨을 푹, 내뉘 뒤 방으로 돌아갔다. 돌아서는 뒷모습이 들짐승마냥 험상궂게 보였다. 아마 적대감이 쌓인 시야에 의해 바뀐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집안의 변화라면 이런 변화를 말한 게 아니었는데…… 화목하고 아늑함으로 뒤덮

인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바랐지만, 운이 좋은 날엔 맞지 않고, 재수가 없으면 몸에 멍이 늘어나는 식으로 변동이 되었다.

그렇게 어느 순간 내 손에는 연필이나 볼펜보다 커터칼을 쥐는 날이 많아졌다. 충동은 시도 때도 없이 욕구를 자극했으며 팔에 붉은 선을 늘려갔다. 반 아이들에게도 자해사실이 퍼진지는 오래였지만 나는 아이들에게까지 혐오감을 주고 싶진 않았다. 그래서 최대한 배려하기 위해 여름에도 긴 셔츠를 입고 다녔다. 작년에 반을 담당하셨던 선생님도 그 사실을 알아채고 그 뒤에 아빠와 통화를 한 적이 있지만, 아빠는 모르쇠를 뒤집어씌우고, 본인이 무관심했던 것 같다며 선생님 앞에서는 보통의 부모와 같이 아빠노릇을 보여줬다. 아빠는 그런 식으로 탈바꿈에 능숙해져갔다.

또 해류처럼 무심히 흐르는 시간은 마음속의 포스트잇을 하나씩 뜯어가듯 내 본질을 앗아갔다. 언젠가 멈추겠지 라는 기대는 시간이 지날수록 잿더미로 변해갔고, 성인이 되면 아빠보다 최대한 잘 살 거야라는 마음가짐은 나이를 먹을수록 빛을 잃어가기 시작했다.

잠시 번거로운 생각을 잊던 도중 무의식적으로 교복셔츠를 걷었다. 그리고 팔뚝 전체에 자리한 얇은 선들을 눈으로 훑었다. 칼날을 최대한 깊숙이 넣어 그어버리고 싶었지만 겁이 솟아 차마 해내지 못했다. 그래서 상처의 질보다는 수량 택한 것이다. 한참동안 상처를 내다보면, 긁는 것에만 온갖 신경이 모여 머리를 최대한 비워낼 수 있었다. 그러나 처음엔 그저 감정해소였다가 어느 순간 이 행위는 도통 손을 놓을 수 없는 경지까지 도달하고 말았다. 미친 짓이라는 걸 알지만 자해도 마약이나 담배와 같이 몸을 해롭게 하는 행위이며 동시에 중독에 빠지게 하는 행위였다. 문제를 인식하기는커녕 미친 행동이 잘 맞아떨어지는 것이라며 무마했다.

가만히 되짚어보니 갑자기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나는 그제야 머릿속을 비워내려 애썼다. 하지만 쉽지 않자 결국 포기하고 침대를 벗어났다. 교복을 벗어 던진 뒤 속옷과 편복을 챙겨 욕실로 들어섰다. 샤워라도 하면 잡생각들이 샤워기에 흐르는 물에 떠내려가지 않을까 하며 샤워를 시작했다. 나는 요동치는 감정에 흐르는 눈물 자국을 샤워기물에 감췄다.

### 3

“사장님 저 16일 날 휴가내주시면 안될까요?”

나는 사장님의 밥 로스마냥 뽀글머리로 뒤덮인 뒷통수를 보며 말했다. 카페가 문을 닫는 시간이 가까워지자 그제야 휴가신청을 받아야 한다던 생각이 났다. 다행히 지금이라도 기억이 났다. 사장님은 바닥을 빗자루로 쓸다 말고 장난끼가 가득한 말투로 대답했다.

“뭐 임마? 그날 사람이 얼마나 올 줄 알고 감히 휴가를 허락받으려고, 이 자숙아~ 나는 반대야, 반대.”

머리로는 저게 장난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마음은 그 말을 농담으로 받아들이

지 못했는지 결국 눈물을 보였다. 사장님은 내 얼굴을 보고 화들짝 놀라며 빗자루질을 멈췄다.

“어? 야, 왜. 무슨 일 있냐? 갑자기 왜 울고 그래. 나 뺨에? 나 뺨에 그래? 야, 그럼 나 한 대 때려. 주먹으로 내려쳐도 돼.”

그렇게 말하며 사장님은 나를 향해 머리를 내보이며 숙였다. 사장님의 이런 모습은 사장님 특유의 유머코드였다. 하지만 그런 모습에도 눈물은 여전히 불가피했다. 사장님은 울음을 다그치지 않는 나를 보고 결국 옆에서 어깨를 두드려주셨다. 나는 겨우 눈물을 훔치고 사장님께 말했다.

“16일 날 온설이 기일이라서 얼굴 한 번 보려고 했는데 혹시 허락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 그런 거였어? 당연히 가능하지. 와, 내가 상황파악도 못하고 장난 한 번 던져 보겠다고 그런 개소리를 지껄이다니. 나 완전 나쁜 새끼다, 그치?”

누가 들으면 장난스럽게 건네는 말인 줄 알겠지만 사장님의 얼굴은 자괴를 담아 진심으로 하는 말이었다. 사장님은 역시 본질이 워낙 특이하신 분이셨다. 나는 웃으며 아니라고 말하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툭, 던졌다.

“그냥 사과할 시간에 빨리 퇴근하도록 하죠. 저에겐 그게 가장 큰 위로일 텐데.”

“아, 그렇지. 미안하다. 나이가 들어서 눈치를 계속 놓치네~”

청소가 끝나고 카페 문을 잠근 뒤, 라이트가 번뜩거리는 간판을 쫓다. 사장님께 인사를 드린 뒤, 차에 시동을 걸자 차가 으르렁 소리를 내며 진동을 울렸다. 나는 능숙하게 운전대를 돌리며 주차구간을 빠져나왔다. 빠르게 달리는 바퀴처럼 퇴근하는 길은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가뿐했다.

오늘따라 현관으로 가는 발걸음이 빨랐다. 피곤해서도, 빨리 씻고 싶어서도 아닌 하루 내내 뇌리를 간질이던 목걸이를 이제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걸음이 빨라졌다.

현관문을 열고 바로 내 방으로 발을 옮겼다. 불을 ‘탁’ 키니 나무 옷걸이에 걸린 고래모형의 목걸이가 우아하게 헤엄치는 몸짓으로 나를 반기고 있었다. 나는 그 품에 이끌리듯 다가가 자연스레 말을 건넸다.

“온설아, 우리 4일 뒤에 만날 수 있어”

고래를 응시하며 말하고는 속으로 이어 말했다.

그때까지 기다려줘.

코가 뭉클해 아리는 것을 겨우 견디며 고래를 향해 인자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곤 침대에서 벗어나 세면을 마친 뒤, 편복을 잠옷으로 갈아입었다. 기일이 점차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몸소 느끼니 설렘인지 긴장인지 모를 감정이 심장을 두드렸다. 나는 그 마음이 설렘이기를 바라며 눈을 감았다.

한참동안 눈을 닫고 있었는데 미세한 허전함이 눈앞을 떠나가지 않았다. 나는 눈을 뜨고 뭔가 싶어서 눈을 이리저리 굴리다 이내 깨달았다.

“잘 자.”

저 멀리 옷걸이에 걸려있는 고래에게, 정확히는 온설이에게 혼잣말을 전한 뒤, 그제야 마음을 놓고 잠을 청했다.

\*

오늘은 봄방학이 막을 내린지 2주가 조금 지난날이었다. 나는 양쪽에서 떠들썩하게 담소를 나누는 애들 중 오른쪽을 한 번 눈여겨보았다. 그러자 아이들 중 한 명이 눈에 들어왔다. 저 애는 사람과의 친분이나 관계를 가지고 유지하는 것에 내공이 꽤나 있는지 아이들은 하나같이 그 아이가 말하는 모든 마디에 몰입했다. 조금 귀 기울여보니 딱히 말투가 재미있거나 하는 건 아니었다. 그렇다고 그 애의 생김새가 훗하거나 반반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외모도 평범하고 욕설이 섞인 거친 말투를 가진 친구들과 달리 나긋하고 보드라운 말투를 가진, 요즘 또래 애들이라면 흔히 시시하게 느껴진다고 할 법한 애였다. 그런데도 저렇게 주변인들이 많은 걸 보면…… 부럽네. 딱히 가진 거 없어도 친구랑 대화할 수 있고 말이야.

그렇게 속으로 툭툭댄 후 왼쪽을 바라봤다. 몇몇은 의자에 앉아서, 몇몇은 창가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나는 저 녀석들이 부러웠다. 나도 그렇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창가자리를 선호했다. 교실이 워낙 학생에 비해 비좁다보니 아이들은 바깥공기를 가까이해서 마시는 것을 생명수를 마시는 것보다도 같이 여겼다. 심지어 자리는 선생님들이 학기마다 직접 골라주시는데, 창문에 가까운 자리로 선정된 아이들에게는 반 전체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을 수 있었다.

나는 조금 뒷자리에 가깝기는 하지만 가운데에 속한 자리에 뽑혔다는 사실만 생각하면 짜증이 정수리를 뚫었다. 혼자인 사람한테 쪽을 주는 것도 아니고 나를 가운데에 딱하니 앉혀서 뭐하자는 건지…… 그래서 보통은 교실에 오래있지를 못하고 자리를 옮길 때가 흔했다. 화장실에서 몰래 자해를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냥 복직한 분위기 자체를 싫어하는 것도 있었다. 그렇지만 화장실만 갔다 오기도, 입마저 움직이기 싫은 날도 존재했다. 심지어 그게 오늘이기도 하다. 온몸이 바람 빠진 풍선처럼 온몸에 기운이 돌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힘을 내려고 안간힘을 써봤자 없던 체력도 딸리기 마련이다. 나는 그저 멍하니 새하얗게 햇빛에 반사되는 창만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너, 앞머리가 엉망이야.”

혼자 고쳐하던 도중 우스꽝스럽다는 듯 히히대는 웃음소리와 함께 내 앞머리에, 즉 구타에 의한 멍과 까진 살이 고스란한 부위에 누군가의 손길이 닿았다. 정확히 말하자면 조금 닿은 정도가 아닌 거의 쓰다듬는 것처럼 내 앞머리를 들추다시피 매만졌다. 이유가 잡히지는 않지만 나는 그 손길이 칼날에 스치듯 싸늘하고도 위협적이게 느껴졌다. 흥이 진 곳을 건드리지는 않았지만 머리카락에 닿는 순간 얼음물을 끼얹은 듯 오한이 혈관을 타고 흘렀다. 내가 다급히 손을 탁, 내치고 동요하며 자리

에 일어나자 책상과 의자가 크게 덜컹였고, 의자는 둔탁한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그 소리가 반에 있던 모두의 귀에 담기자 어수선하던 교실이 소름 돋을 정도로 순식간에 정적을 채웠다.

나는 떨리는 동공으로 교실을 슬며시 훑었다. 아이들은 하나같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내가 서있는 쪽을 주시했다. 그 정적과 시선들은 순식간에 반을 빙하로 변질시킨 듯 몸 곳곳에 찬 기운이 일게 했다. 창가자리까지 눈을 당겨본 뒤, 내 앞머리에 손을 댄 놈이 누군지 얼굴을 담기위해 시선을 옮겼다.

뭐야, 이 자식은.

아까 오른쪽에서 학생들끼리 모여 이야기를 나누던, 그 시시하게 느껴진다던 애가 내 얼굴이 자리했던 허공에 한 손을 내민 상태로 얼어붙어있었다. 본인도 내 돌발 행동에 당황한 건지 삼백안이 드러날 정도로 눈을 크게 벌린 채, 어병한 꼴로 미동도 하지 않았다.

나는 미간에 주름을 구기며 그 애에게 불쾌하단 심기를 드러냈다. 그 애는 그제야 정신을 되찾은 듯 “아, 정말 미안해!” 하며 손을 거뒀다. 나는 미안하단 말을 질경 질경 씹듯이 들은 채도 하지 않으며 자리를 떴다. 그러나 냉랭한 얼굴을 유지하며 뺨에도, 속은 용암처럼 화기가 요동쳐 표정을 유지하기 어려웠다. 그렇게 서늘해진 반 분위기를 외면한 채 반을 빠져나왔다.

나는 가장 안쪽에 위치한 칸에 들어간 뒤, 변기 위에서 무릎을 껴안은 채 웅크리고 있었다. 아무리 둘러봐도 내가 몸을 최대한 숨길 수 있던 곳은 겨우 1층에 자리한 화장실밖에 없었다. 어차피 나를 찾아오는 이도 없다. 늘 어딘가 우뚝 있어도 아무도 눈길 하나 건네지 않는 투명인간 취급만 받아왔으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무슨 일 있냐고 안부를 물을 사람도 내 주변에 존재할 리가 없었다. 나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누가 나를 찾아오는 경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 지금은 오히려 그 편에 감사함을 느껴야 할지도 모르겠다. 쉬는 시간이 끝날 때 까지만 이라도 이 고요함이 깨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 하지만 내 주위가 고요해도 이토록 고요한 걸 보니 난 정말 영락없는 외톨이가 맞구나.

차라리 커터칼을 들고 올 걸 그랬나. 원래 이 정도로 기분이 잡칠 때면 팔이든 손목이든 칼질을 해야 떠름하던 마음이 점차 풀리기라도 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곤 검붉게 딱지가 진 팔뚝을 네 손가락으로 훑으며 쓰다듬었다. 그리곤 에라, 모르겠다는 듯 다시 웅크린 자세를 붙잡았다. 혼자만의 시간으로 쉬는 시간을 보내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다.

그나저나 아까 손이 닿았을 때, 전류와 비슷한 감각은 뭐였을까. 앞머리를 다듬으려는 손이 동공에 담기자 집에서 친부에게 머리를 맞았을 때의 기억이 아득하게 맞닿았다. 분명 장소도, 손의 촉감도, 압력의 차이도 확연히 갈리는데도 그 손길이 살벌해보였던 건 왜일까. 마치 내 몸에 흠집이라도 낼 것만 같았던 건 왜였을까.

후…… 머리는 왜 만지고 지랄이야, 진짜.

부채질을 열심히 휘저어 봐도 도통 이마에 열기가 식지 않는다. 아직도 앞머리에 검지와 중지, 약지의 끝마디가 닿아있는 것처럼 감각이 지워지지 않았다. 설마 머리에 약점이 생긴 건가. 그 전에는 아빠 외에는 내 머리에 손을 대는 사람이 없었기에 지금까지 의식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감당해야 할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사실이 어깨를 무겁게 했다. 안 그래도 아빠에게 덤비지 못할 정도로 몸이 쇠약한데 거기다 약점까지 받쳐지다니. 생각할수록 벗어던지고 싶은 몸 따위다.

쉬는 시간이 다 가고 수업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못마땅한 심기는 계속해서 아른거렸다. 결국 여전히 기분이 짜진 채로 수업은 시작되었다.

역시나 선생님의 설명이든 교과서든 어느 것도 뇌에 박히기가 쉽지 않았다. 머릿속은 쉬는 시간에 벌어진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계속해서 펼쳐졌다. 결국 어지러움을 못 참고 최대한 소리를 낮추어 “으으……” 탄식을 내뿜는데, 동시에 포스트잇을 접어 만든 노란 쪽지가 내 책상위로 날아왔다. 나는 갑작스레 굴러온 쪽지에 눈에 물음표를 띄웠다. 쪽지를 집어 들고 쪽지가 날아온 쪽, 오른쪽을 돌아보니, 작년에 같은 반이었던 변예성과 내가 눈이 마주쳤다. 내가 무슨 불일 있냐고 묻자 변예성은 손가락으로 자신의 우측 앞에 있는 자리를 가리켰다. 그 자리에 내 앞머리를 건드렸던 애가 안절부절 하며 나를 돌아보고 있었다. 모양새를 봐선 재가 보낸 것 같기도 한데, 왜 저렇게 주춤거려? 나는 미심쩍은 심정을 뒤로하며 쪽지를 펼쳤다.

미안해

-남온설-

그 문장을 보자 미묘한 기분이 들었다. 말이 아니더라도 직접 ‘미안해’라며 건넨 것 자체가 간만이라 그런가. ‘미안해’ 그 세 글자가 그리 눈에 익지 않은 단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새로 쌓인 눈발을 밟듯 한 자, 한 자 읽히는 느낌이 생소하고도 이상야릇했다.

나는 뜻밖의 감정을 품으며 다시 그 애에게 눈을 돌렸다. 그 애는 읽기만을 기다렸다는 듯 나에게서 눈길을 놓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곤 나와 시선이 맞닿자 손바닥을 딱 붙인 두 손을 얼굴에 가져가고는 입모양으로 “미안”이라며 마지막까지 사과를 건넸다.

나는 차마 괜찮다며 응할 수 없었다. 이럴 땐 무슨 표정을 지어야 하며, 괜찮다는 말 뒤에 어떤 말을 덧붙여야 하는지 응답에 능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의도와는 달리 애써 무시하는 듯한 모양새로 황급히 그 애에게서 시선을 떼버렸다. 그리고는 최대한 시야에 멀리하려는 듯 쪽지를 모서리 쪽으로 밀어버렸다. 나는 수업에 집중하는 척하며 고개를 정면으로 둔 채 몰래 그 애가 있는 쪽을 흘깃했다. 그 애

는 겸연쩍은 미소를 짓더니 다시 교과서에 시선을 두었다.

무시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두 번이나 용서를 구했는데도 그걸 싸잡아서 회피해버린 셈이 되어버렸으니 없지 않아 낮간지러운 기분이 들었다.

그보다 저 녀석이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새로움의 연속이었다. 처음 보는 애 앞머리가 이상하다며 그걸 다듬어주는 것도, 흔히 대수롭지 않게 느낄법한 잘못 하나 저질렀다고 두 번이나 사과를 표한 것도, 그것도 나를 중심으로 그 행동들을 이어 나갔다는 것 모두 차마 실감나지 않았다. 초면을 더해 무방비한 사람에게 접촉을 시도하고, 또 그거에 어색함 없이 자연스럽게 쪽지까지 건네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아무리 세상에 모든 적극적인 사람들이라도 모두 턱이 빠져라 입을 열 것이다. 물론 내 생각엔 그렇다. 저런 애랑 흡사한 성격을 가진 애라면 저리 막무가내인 행동도 그러려니 할지도.

근데 방금까지 선생님이 뭐라 하셨지? 나는 하품을 한 번 작게 한 뒤, 앞머리를 형클어트리며 머릿속에 온갖 판전을 털어냈다 괜히 사람하나 때문에 수업에 집중이 막연해질 필요가 있나 싶었다. 어차피 내일이면 다시 서먹해질게 뻔한데.

나는 무의식적으로 쪽지의 근원지에 다시 시선을 가져갔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약 1초간 눈이 마주쳤다. 예상치 못한 눈맞춤에 나는 화들짝 놀라며 마치 없던 일처럼 재빨리 교과서로 시선을 처리했다. 그 녀석도 마찬가지로 잠시 소스라치며 앞을 향했지만, 나와는 달리 자꾸만 시선을 내 쪽으로 차차 돌렸다.

아, 진짜 부담 타게 왜 쳐다보는 거야! 뭘 꼬냐고 큰소리 칠 수도 없고.

힐끔힐끔, 내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짓을 멈출 의향이 없는 건지 이제는 조금 성질을 쿡쿡, 자극시키기 시작했다. 나는 잔뜩 짜증이 섞인 눈으로 손짓과 함께 “눈 치워.”라고 날카롭게 날렸다. 이어 그 애는 흠칫, 반응을 하며 재빨리 고개를 제자리로 앉혔다.

나는 그 모양새를 본 후에야 이목을 수업에 둘 수 있었다. 지금부터 생각의 문을 닫아두기로 했다.

나는 오늘 벌어졌던 황당한 일을 테이프처럼 머릿속에 되감으며 하룻길을 걷고 있다. 긴 시간이 지나도 생각을 버리지 못하더니 차마 생각하지 못한 고려가 있다는 걸 깨달았다.

혹시 상처를 보기라도 한 걸까?

남은설이 손을 댄 부위는 정확히 폭행을 당하던 도중 어딘가에 부딪혀 벗겨진 상처였다. 보통사람이라면 그게 정확히 폭력에 의했다고 결단 짓기 어렵지만, 괜한 불안감은 손에 진동벨을 쥐게 한 듯 떨림을 분사시켰다.

나는 길거리에 두 다리를 곤두세우고, 눈을 감은 채 자기최면을 걸었다.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분명 보고도 흔히 생기는 상처겠지 하고 지나갈 거야. 다들 그러니까, 개도 분명 그럴 거야.

불안은 사람을 이리도 쉽게 휘몰아버린다. 확률 따위가 열 손가락 중, 한 손가락만 접힐 만큼의 수치라도 심장을 손아귀로 쥐었다, 피며 혼을 빼놓는다.

속으로 안심을 줄 만한 문장들을 아무리 속삭여도 안정은 쉽사리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자유분방한 생각을 내버려두고 무거운 발을 움직였다. 발이 두 걸음정도 그 자리에서 멀어지자 뒤에서 몇 번 깜빡이던 가로등 불이 톱, 꺼졌다.

쾅!

완강하게 충돌하는 소리와 함께 눈이 번쩍 뜨였다. 잠시 몸을 누인다는 게 나도 모르게 잠이 든 건지 눈꺼풀이 뻑뻑했다. 그리고 그 쾅쾅거리는 충돌음은 내가 정신을 깨운 뒤에도 멈출 기색이 없었다. 그 소리는 내 방문이 무언가와 부딪히며 나오는 파열음이었다. 하지만 주먹으로 두드리는 소리가 아닌 문을 부수듯 발로 걷어찰 때 울리는 소리와 같았다.

“이 씨부털새끼가 집에 처박혀만 있고…… 네가 그러고도 사람새끼야? 안 나와?”

정말로 문을 박차고 들어올 작정인지 끊임없이 주먹질과 발길질을 던졌다. 나는 정말 문에 금이라도 돈을까봐 이불을 머리끝까지 감싸고 긴장을 놓치지 않았다. 계속해서 문 틈사이로 욕설과 고성인 뒤섞인 소리들만이 내 고막을 찢었다. 나는 속으로 ‘제발 꺼져라. 그냥 방으로 돌아가라. 아니, 그냥 내 앞에서 사라져버려라.’라며 중얼댔다.

얼마가 지나자 조금 진이 빠진 건지 “에이 쌍.” 하며 ‘툼’ 하고 침을 뱉는 소리를 끝으로 자리를 비우는 소리가 났다.

저 인간은 술만 들이켜도 저 지랄을 해댄다. 뭐? 내가 그러고도 사람새끼냐고? 과연 그 말이 지가 함부로 입을 놀릴 자격이 있는 말인가? 본인은 사람새끼도 아빠도 아무것도 갖출 자격도 없으면서……

무심코 핸드폰을 켜 시간을 확인했다. 2시가 조금 넘어있었다. 분명 3시간 전에 잠에 들었는지 확인하기도 했고, 이 새벽에 깨어날 일도 별로 없는데 웬일로 새벽부터 역정일까.

저녁도 일부러 입에 대지 않아 곧 있으면 배가 고파지기라도 할 것 같았다. 하지만 입맛은 이미 헛바닥으로부터 메마른지 오래였고, 지금 상황에서 나가봤자 저 인간이 죽이려 달려들 게 분명했다. 나는 한숨과 함께 욕을 뱉고는 다시 이불을 뒤집어썼다. 몸에 멍을 늘리는 대신 굶주리는 쪽이 더 마음이 놓였다.

새벽, 4시쯤에 다시 팔을 그었다.

다시 잠 들긴 했어도 그리 오래 눈을 감은 것도 아니었다. 꿈을 마치고 나니 내 눈에 들어온 건 블라인드 틈으로 미세하게 보이던 밤하늘, 그리고 그 밤하늘을 보자 느껴진 건 질리도록 내 정신을 휘두르는 우울감. 안 그래도 정신이 몽롱한데 다짜고짜 눈을 가리는 우울감에 머리가 지끈거렸다. 동시에 폭군적인 괴성과 힘없이 흔들리던 문이 허공에 아른거렸다. 불과 1분 전에 일어난 일같이 아직도 그 기억에



서 벗어날 수 없었다. 지금까지 수없이 일어났던 일이지만 익숙해지기는커녕 언제 쯤 멍이나 생채기가 생길지, 그 악몽 같은 시간이 언제까지 뒤따라올지 예측할 수 없기에 오히려 불안감에 물을 주는 상황이었다.

나는 내 목을 죄이는 모든 불의들이 길을 향할수록 어둑해지는 터널과도 같아보였다. 처음에는 언젠가 빠져나올 길을 발견하겠지 라는 기대감을 애써 끌어안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이 견잡을 수 없다는 깨달음만이 깊어져만 갔다. 더 이상 불빛에 대한 기대는 묻어나지 않도록 굳어버린 지 오래였으나 내 다리는 아직 기대감이 남아있는 것 마냥 기계처럼 걸음을 이었다. 더구나 그로 인해 한 발 한 발 내딛는 발걸음은 정신이든 육체든 나를 서서히 피폐해지게 만들었다.

나는 눈물방울을 베개 위로 하나하나씩 흘려보냈다. 그리곤 무심코 왼팔을 들어 올린 뒤 눈으로 뚫어져라 바라봤다. 사선 또는 엑스형태의 얇은 선들은 보기만 해도 탄식을 삼킬 수 없을 정도로 왼팔을 차지했다. 하지만 내 눈에는 여전히 빈틈으로 뒤덮인 듯 허전함을 떨칠 수 없었다.

나는 반사적으로 침대를 벗어났다. 그리곤 옷장을 벌컥, 열어 옷걸이에 걸쳐진 여러 옷가지들을 한 쪽으로 밀어냈다. 그러자 먼지덩어리가 끼인 옷장모서리 쪽에 뽁뽁 숨겨둔 커터칼들이 쌓여있었다.

나는 망설임 틈도 없이 칼 하나를 쥐었다. 꺾데기에 가려져있던 칼날이 드르륵, 머리를 내밀자 ‘이제 이 칼날이 살갓을 파고들겠지.’ 라는 생각이 아무렇지 않게 속삭여졌다.

날카로운 칼놀림이 상완 또는 팔뚝에 기다란 금을 한 차례씩 그어갔다. 초반에는 쓰라린 촉감을 아무리 연달아도 해소감에 도달하기엔 멀었다. 어느 경우엔 핏자국이 팔을 감싸듯 번수를 늘려도 갈증이 고여 있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게 딱 오늘날이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섬세하게, 또는 거침없이 여러 번 베는 것을 반복했다. 하지만 아무리 개수를 늘려도 성에 허한 감만 남아있었다. 그로부터 무의식적으로 살에 칼을 마구 댔고, 정신을 차려보니 어깨부터 손등까지 그을린 피딱지들 위에 또 다른 핏방울이 맺히고 있었다.

많이도 그었네. 피투성이가 된 팔을 보자 허탈한 웃음이 공기가 픽, 빠지듯 흘러나왔다. 왼팔은 말이 쉬이 나오지 않게 무참한 꼴이 되었고, 거북스럽게도 그제야 충족감이 한결 가벼워졌다.

나는 팔을 물로 헹궈내지도 않고 바로 침대로 다시 몸을 옮겼다. 침대 시트에 상처가 찰려서 먼지나 세균이 잔뜩 들어간다 해도 그다지 기피되는 감은 없었다.

수업은 이미 끝난 지 오래이기에 복도는 오후의 햇살로만 가득 비치고 있었다. 저 주홍빛이 깔린 바닥도 이젠 지겹도록 눈에 익숙했다. 그토록 싫어했던 야자를 하게 된 이유는 매일같이 나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아빠 탓이었다.

나는 교복 셔츠를 걷어 팔뚝을 이리저리 살폈다. 피를 씻어내지 않고 자서 그런지 수채화마냥 피가 살에 번져 들러붙었다. 나는 다시 한 번 사람이 없는지 복도를 살

핀 후 왼팔을 미친 듯이 벽벽 긁었다. 쇠뚫이 심해진 건지 수업 내내 꺾꺾 참아왔던 가려움이 더욱 자극됐다. 손톱이 지나간 자리에 하얀 금이 여러 개로 갈라지고 딱지가 손톱사이로 끼어들었다.

아, 처음부터 긁지 말았어야 했다. 긁으면 긁을수록 가려움은 더해지고 쓰라리기까지 했다. 나는 힘차게 긁어내던 손을 멈췄다. 왼팔이 아까보다 더 꼴사나워졌다. 하얀 손톱자국이 스쳐간 팔뚝은 불그스름해지고, 벗겨진 상처에서 긁혀나온 피가 그 불그스름한 빛깔을 더욱 짙게 했다. 잘게 부서진 굳은 피가 가득한 손톱을 코에 가져가니 피비린내가 풍겼다. 불쾌한 냄새라 썩 좋진 않아서 씻어내는 게 좋을 것 같았다. 나는 물 수압을 최대한 올린 후 손톱에 비누칠을 해 때를 조금씩 떼어내기 시작했다. 꽤나 손톱에 깊게 파고들어갔는지 아무리 빼내어도 끈질기게 남아있다. 열심히 제거에 집중하다 결국 나중에 저절로 빠지겠지 하며 그만두었다. 그때 누군가가 화장실로 들어왔다.

“허억……”

지난 주, 내게 사과의 의미로 쪽지를 건네던 그 애가 거울에 비친 상처들을 보자 낮빛을 창백하게 얼렸다. 나도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던 상태라 갑작스런 불청객을 행동거지가 굳어버렸다. 그러다 재빨리 정신을 되찾고 손을 씻는 데에만 열중했다. 보통 사람이라면 내가 관심을 주지 않는 한 알아서 자리를 피할 테니 무시하면 그만이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조심스럽게 건네는 듯한 음성이 들렸다.

“너, 자해하니?”

그 말이 고스란히 귀에 꽂히자 나는 속으로 조금 놀라며 뒤를 돌았다. 그리 반가운 질문도 아니었고 예상을 하던 질문도 아니었다. 왜 예상이 가지 않았냐하면 내가 자해한다는 사실은 이미 학년, 반, 신분 따질 필요 없이 널리 퍼진 상태였다. 그런 나를 다그치려 하는 학생이나 선생님이 아무도 존재하지 않을 뿐. 그런데 저 녀석은 이때까지 알지도 못했다는 듯 눈을 키우며 내게 물은 것이다. 정말 못 들은 걸까, 아님 지금까지 그 사실을 믿지 않고 부정한 것일까.

그보다 뜻밖의 이실직고마저도 억울한데 굳이 다시 확인시키려 드는 질문은 스트레스를 두 배로 쌓이게 했다. 자해하냐는 질문은 나를 포함한 세상 모든 자해를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느낄 것이다. 최대한의 조심성을 갖춘 듯한 억양이나 표정으로 서늘한 분위기를 잡으면 정말 구역질이 쏠린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놓고 그 뒤에 내가 대답을 내놔야 한다는 건 정말이지 그 사람이 이기적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나는 자해하냐는 그 말마저도 무시하며 태연한 얼굴로 화장실을 나오려했다. 그러자 왼쪽 손목에 뼈근한 압박이 느껴졌다. 뒤를 돌아보니 역시나…… 이 자식은 만나기만 하면 도통 나를 가만두지 않는다. 남은설이라고 했다.

“기다려 봐. 이거 네가 그런 거냐고.”

남은설의 음성이 점차 강압적이게 변하자 나는 지지 않겠다는 듯 신경질 적으로

빨았다.

“야, 이거 안 봐? 자해인지 아닌지 알아서 뭐할 건데. 남이 손목을 긁든, 상처를 긁든 그냥 꺼져. 허튼 짓 부리지 말고.”

남은설은 당장이라도 툭, 건드리면 눈물이 와르르 쏟아질 듯했지만 밀리지 않고 내게 물었다.

“병원은? 아님 양호실이라도 가봤어……?”

내가 그어낸 상처는 그리 깊게 패이지 않고 겉에 피만 조금 맺히는 정도의 상처였다. 그래서 굳이 병원에 들르지 않아도 연고를 바르면 금세 치료가 되는 정도였다. 그걸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는 걸 보니 남은설에게 처음으로 무식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보다 성이 단단히 오른 나와 달리 남은설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다. 나는 그걸 보고 한 마디를 더 던지고 싶었다. 너는 상냥함이라든지 배려심은 깊은데 왜 눈치가 그리도 없니. 내가 원하지 않으니까 발을 들이지 않은 거지. 치료하기를 원한다면 이런 짓은 왜 저질렀겠어. 내가 긴 시간동안 빈틈없이 만들어낸 상처인데 그걸 없애버리면 꼼꼼히 상처를 그어뒀던 그 시간들은 무슨 의미가 남아.

나는 그렇게 빨고 싶은 욕구를 겨우 참아내고 뼈뚫이같이 던졌다.

“거길 왜가, 내가.”

솔직히 이렇게까지 너그럽게 살피주는 애인데, 나도 이런 식으로 날카롭게 받아치고 싶지는 않았다. 하지만 펜스레 엮이는 것마저도 원하진 않기에 나는 뻘뻘해지기로 마음먹었다. 거길 왜가, 내가. 정말 이해가 안 된다는 어투를 구사하며 그 애의 질문을 내쳤다.

그러나 쌀쌀맞은 태도에도 남은설은 조금도 화가 솟지 않는 건지 심통의 기색을 조금도 드러내지 않았다. 나는 내가 붙잡는 쪽이 아닌데도 속이 툭툭 막히는 기분이 들었다. 애는 충분히 배려를 베풀어도 좋은 사람, 좋을 것 없는 사람을 구별 못하는 건지, 그런 거 상관없이 모두에게 관대한 편인지, 어느 쪽이라도 아둔해보였다.

결국 내가 먼저 자리를 비키기로 했다. 저번까지만 해도 은근히 관심을 이끌었던 애였는데 약해지는 모습을 보니 조금 실망감이 올랐다. 남은설도 딱히 던질 말이 떠오르지 않는 건지 나를 다시 붙잡지는 않았다.

방금까지는 싸늘하게 느껴지던 감정이 화장실을 벗어나고야 가슴께에서 미묘하게 꿈틀거리는 것이 전해졌다. 마치 쪽지를 처음 읽던 그 감정과 맞닿은 감촉이었다. 낯설고도 포근한, 기분이 나쁘진 않지만 감정을 받아들이기엔 익숙지 않은.

누군가에게 염려를 받은 게 꽤나 오래간만이라 그런 것 같기도 했고, 가족도 옛 친구도 아닌 이름이나 얼굴 외엔 서로에 대해 아무런 정보도 갖추지 못한 같은 반 애가 나를 살피주니 이 심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다. 하지만 그보다 확실한 건 나는 누군가의 걱정을 사는 것을 원치 않는다.

교실로 들어가 내 의자에 엮어진 가방을 챙겼다. 무심코 고개를 살짝 옮기자 남은 설의 책상이 눈에 들어왔다. 남은설의 책상은 평소와는 달리 다소 어수선했다. 네이비색 가방 옆에는 열 권 정도 되어 보이는 책들이 쌓여있었다. 나는 슬쩍 턱을 벌리며 약하게 놀랐다. 쌓여져 있는 책들은 하나같이 두께가 알팍하지 않고 두터운 책들이었다. 우리학교 도서관은 책을 빌리는 기간이 일주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 정도의 양을 한꺼번에 빌린다는 것이 보고도 믿기지 않았다.

그리고 보니 저 녀석 야자도 안 하는 것 같던데 수업 끝나도 여기 남아있나. 야자 하는 애들도 나처럼 야자 전에 학교에 남는 일은 거의 없던데.

그렇게 생각하던 도중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그 발소리의 주인이 남은설이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교실을 다급히 빠져나왔다. 그리고 내가 지나가는 것을 눈치 챈 남은설이 나를 향해 “저기……!” 하며 불렀다. 그 소리에 심증이 솟구치자 하는 수 없이 학교를 나오기로 했다. 끈질기게 달라붙는 태도도 그렇고, 저 애 하나 때문에 찬바람을 맞아야 된다는 생각에 분이 올랐다. 나는 입술을 앞니로 짹 깨물며 계단을 황급히 내려갔다.

현관까지 빠져나온 뒤, 뒤를 한 번 돌아봤다. 뒤따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결국 손을 놓은 건가. 나야 편하지, 뭐. 나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다시 앞을 보고 걸었다. 등줄기에 서늘하게 닿는 이유모를 공허함은 애써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믿으면서.

멀리서 희미하게 아파트가 보이자 나는 무심코 걷고 있던 걸음을 멈췄다. 흐릿하게 모습을 드러내는 아파트와 어젯밤, 벼락처럼 흔들리던 방문이 겹쳐보였다. 그 인간이 하루 새에 정신을 깨우칠 리가 없다. 어제처럼 취기가 그득한 상태일수도 있으니 최대한 피해야 할지도 모른다.

나는 한숨을 깊이 뱉어내며 되돌아왔던 길로 다시 뒷걸음질을 쳤다. 불안한 김새가 도저히 지워지지 않았다. 들어가려면 일찍이라도 새벽 즈음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 한두 시간 정도 기다리는 건 능숙해진지 오래니까.

아빠는 엄마가 떠나고 난 뒤, 퇴근을 하면 바로 잠자리를 찾을 정도로 부쩍 잠이 늘었다. 그러한 성향은 심리적인 작용 말고도 술김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예상했다. 작년부터 자정을 넘기지 못한 채 잠에 드는 경우가 잦아졌고, 그런 날은 음주를 하지 않았거나 밖에서 미리 술을 들이켠 상태로 귀가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었다. 나는 그러한 점을 매우 다행히 여겼다. 아빠가 잠에 드는 찰나에야 그나마 수월하게 집에 들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술을 마시지 않았거나 밖에서 마시고 오는 경우엔 무난할지 몰라도 집에서 술을 들이키는 날에는 시간을 가늠하거나 새벽을 넘더라도 소용이 없었다. 구타를 가하고 싶은 충동을 술이 쿡쿡, 자극시키는 건지 집에서는 아무리 늦은 시각이라도 내가 돌아올 때 까지 아빠는 무조건 정신이 뜨여있었다. 그리고

내가 귀가를 하는 찰나에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다. 어젯밤도 그랬듯 이와 같이 예외의 순간도 드물지 않게 찾아온다.

그렇지만 쉽사리 죽음에 뛰어내리지 못하는 나에겐 이러한 방식으로 하루를 버티는 것이 최선의 도리였다. 죽을 용기가 없다면 나를 향해 날아오는 손찌검이나 흉기를 최대한 피해가며 지내는 것이 그나마 상책이었다.

오늘도 현관 앞에서 몸을 우뚝 세운 채 존재하는지도 모를 신께 빌었다. 제발 오늘 밤도 아무런 소란 없이 고이 흘러가게 해달라고. 이제는 이런 노릇도 지긋하게 느껴질 법도 하지만, 막상 이 순간처럼 귀가를 하는 찰나가 들이닥치면 실존의 여부는 안중에도 없이 간절한 마음을 속삭이게 된다.

그런데 도중 현관문이 벌컥, 열렸다. 소스라치며 고개를 들자 코를 찌르는 알코올냄새와 언제나 공포심을 자극하는 혐악한 인상의 중년 남성이 내 눈을 마주했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머리가 냉각으로 뒤덮인 듯 뽕뽕 얼어붙었다. 잠시 험령해진 정신줄을 재빨리 붙잡아보았지만, 도망치려 발을 떼기도 전에 머리채가 붙잡혔다. 나는 머리카락이 뽑힐 듯한 통증을 애써 견디며 누군가의 귀에 닿길 바라는 마음으로 힘껏 비명을 내질러보았지만,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산산이 목살되었다.

쿵, 울리는 소리와 함께 내 몸과 머리가 바닥에 내던져졌다. 뭉개지는 듯한 통증으로 가득 찬 머리를 감싸 쥐며 고통스러워하는 것도 잠시, 아빠에게 배를 걷어차였다. 배를 걷어차일 때마다 숨이 차도록 기침을 게워냈다.

하지만 혼미해져가는 정신을 붙잡고, 나는 반항하듯 아빠의 발목을 붙잡았다. 아빠는 욕을 나불대며 나를 떼어내려는 듯 다리를 휘둘렀지만 나는 놓을 생각이 없다는 듯 곳곳이 손에 압력을 가했다. 그때, 그 틈으로 내 턱에 발이 날아왔다. 동시에 다리로부터 손이 놓였고, 간신히 붙잡고 있던 이성마저 손에서 벗어났다.

이어 광대뼈에 돌덩이마냥 단단한 주먹이 부딪히자 나는 발악을 하며 그 자리에서 빠져나왔다. 눈앞이 까마득해 피할 곳을 찾아내기 힘들었지만, 치아가 부서질 듯 이에 힘을 주어 제 방으로 달려갔다. 재빨리 문을 닫은 뒤, 잠그자 어제와 같이 또는 어제보다 훨씬 격심하게 방문이 요동쳤다. 걷어차거나 두드리는 소리로 시작해서 문고리를 잡고 흔드는 소리가 반복되었다. 어떻게든 소리를 막으려 이불을 양손에 쥐고 귓구멍에 갖다 대자 폭신한 이불너머로 귀를 찌르는 잡음이 들렸다. 눈을 질끈 감자 격하게 흔들리는 문이 캄캄한 시야에 아른거렸다.

아빠는 한참동안 문 앞에서 난동을 피우다 진이 빠질 때쯤 발걸음을 옮겼다. 귓가에 들리는 발소리가 멀어지자 뒤이어 터진 입안이 더욱 생생히 쓰라렸다. 그러나 따끔하게 입속을 들쭉시는 상처와 얼얼한 광대보다 진정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심박이 더욱 아프고 힘겨웠다.

등교 전, 미리 거울을 확인해보니 비취진 얼굴은 가관이라 불릴 만큼 엉망이었다. 이마에 자리했던 멍은 열린 김새도 없이 오히려 검푸른 빛깔만 짙어졌고, 왼 볼은 여전히 불그스름한 자국이 엮어져있었고, 입안에 자리했던 상처들은 구내염으로

하얗게 변질되어있었다. 나는 입안에 찢어진 부분을 무의식적으로 혀로 문질렀다. 당연하게도 혀는 바늘이 되어 상처를 따갑게 찌시기만 할 뿐이었다. 이어서 어젯밤에 일어났던 살벌한 광경이 애써 비워냈던 머리 위로 다시 떠올랐다. 나는 미친놈처럼 작게 괴성을 뱉으며 책상에 엎드린 뒤, 머리를 이리저리 헝클어트렸다. 그 혹독한 기억은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았다. 기억해낼수록 마음만 괴로워질 뿐인데 지금만큼은 어딘가로 내던지고 싶었다. 하지만 지워내려 애쓸수록 더욱 보란 듯이 시야에 들어대는 머리가 원망스러웠다. 남들이 보면 흔히 어딘가 홀린 사람 취급하겠지만 반 아이들은 수다든 취미든 자기 관심사에만 시선을 두어 나를 바라볼 낯새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나는 아무리 머리채를 비집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아채고 두 눈가에 한 손을 포개어 한숨을 불었다. 가끔은 이런 처지가 순편하게 느껴지면서도 때론 서럽게 느껴지곤 했다. 나에게 무슨 거사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입 밖으로 편히 얘기할 사람도, 그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도 내 주변엔 위치하지 않다는 사실이 가끔 이렇게 심기를 찌를 때가 있다.

잡생각에 깊이 빠져있던 도중 무심코 시계를 확인해보니 쉬는 시간이 3분도 채 남지 않았다. 왜 제한된 시간은 초반엔 느리게 느껴지다가도 성급해 보이는 걸까.

의미 없는 의문을 속으로 조잘대던 그때, 내 앞머리가 흰히 들춰지는 감각이 느껴졌다. 닿는 정도가 아닌 정확히 쓸어 넘기는 손길이었으며, 앞머리에 감춰진 이마에 서늘한 공기가 닿았다. 동시에 지난번처럼 누군가의 손뺑이 날아오기라도 한 듯 아찔한 공포감이 곤두섰다. 나는 ‘헉’하고 소스라친 뒤, 황급히 몸을 피하며 옆을 돌아보았다.

손길이 닿은 쪽을 돌아보니 남온설이 내 옆에 우뚝 서있었다. 이번엔 그때와는 달리 나를 따라 놀라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며 나를 내려다보았다. 나는 눈으로라도 욕을 지르는 심정으로 그 애를 쏘아봤다. 점점 남온설이 꺼려졌다. 남의 신체일부에 함부로 손을 대는 행위나 상대의 예민한 부분을 건드릴만한 질문을 서슴없이 던지는 것. 얼굴 조금 마주한 적 있다고 다시 허투루 앞머리에 손을 가져가는 것. 심지어 시간이 지나도 그 버릇을 고칠 생각조차 않는 것. 정리해보니 정말 하나부터 열 손가락 전체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나는 최대한 목소리를 낮게 깔며 “건들지 말고 말로 해.” 라고 쏘아붙였다. 남온설은 그 말을 듣자 바로 발걸음을 떼었다. 나는 딱히 뺨을 말도 없어서 자리로 다시 돌아가나 싶었지만, 남온설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선생님이 앉아계신 자리였다. 나는 또 무슨 꿈꿨인가 싶어 선생님과 알 수 없는 대화를 나누는 그 애의 얼굴을 뚫어지게 노렸다. 대화가 짧게 마치자 남온설은 선생님께 열게 미소를 보이며 허리를 숙이고 자리를 벗어났다. 나는 그제야 자리로 찾아가나 생각했지만 남온설은 다시금 내 쪽으로 다가왔다. 그 애와 거리가 가까워지는 것을 실감할수록 미간이 찌푸려졌다. 당장이라도 저리 꺼지라고 내뺨고 싶었지만 그 애의 뻔뻔한 행동에 성대마저 열리지 않았다.

남은설은 내 손을 제 쪽으로 끌어당기며 말했다.

“서혜야, 보건설가자.”

나는 얼떨떨한 심정으로 그 애를 멀뚱히 쳐다봤다. 분명 이런 상황이라면 손아귀를 내치고 싶은 본능이 먼저일 텐데, 왜인지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쉽게 뿌리치지 못하겠다.

“선생님한테 다 말씀드렸어. 허튼 짓 절대 생각도 않을 테니까 상처만이라도 치료하자.”

나는 그 말에 넋을 잃었다. 내가 몇 번이고 냉담하게 밀쳐내고, 거친 언어를 뱉으면서까지 기피했는데 지친기색도 없이 계속 달라붙으니 황당함에 혼이 빠질 듯했다.

과약하기도 전에 몸이 남은설을 따라 질질 끌려갔다. 그 애가 쥐거나 당기는 손의 압력이 꽤나 센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도 두 다리가 그 애가 밟고 지나간 바닥을 터덜터덜 이어 밟았다. 그렇다고 어정쩡한 기분이 가지지 않은 것도 아니지만 차마 한마디도 목구멍 너머로 끄집을 수 없었다.

“야, 계단……”

나는 계단을 내려갈 때만큼은 안전을 생각해서 손을 놓을 줄 알았다. 하지만 남은설은 정말 한 시라도 손을 놓을 생각이 없는 듯, 한 칸 한 칸 걸음을 내딛어도 맞잡은 손에 힘을 풀지 않았다.

결국 내가 먼저 손을 빼내니 남은설을 멈칫하며 나를 한 번 힐끔, 보고는 뒤늦게 발이 닿는 위치가 계단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곤 앞장서서 내려갔다. 차라리 교실로도망칠까하는 고민을 잠시 떠올렸지만 계속해서 뒤를 따르기로 했다.

보건설에 도착하자 남은설이 하얀 문을 푹푹 두드렸다. 그러자 따뜻하게 “네.”하고 대답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남은설은 보건설로 들어서려 다시 내 손을 붙잡았다. 나는 다급히 말문을 열었다.

“잠시만.”

남은설이 모호한 표정으로 내게 ‘왜?’하며 물어보듯 쳐다봤다.

“혹시 네가 치료하자는 상처가 여기는 아니지?”

나는 왼팔을 쓰다듬으며 물었다. 나는 내가 직접 그은 상처들을 없애고 싶지 않았다. 해소감을 충족시키기 위해 만든 상처들을 치료해줘야 분명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올 것이고, 어차피 언젠가 상처들이 또다시 자리를 메울 것이다.

남은설은 팔을 쓰다듬는 손길을 따라 눈길을 움직이곤 내게 말했다.

“네가 원하지 않으면 말 안 할게. 대신 여기라도……”

남은설이 자신의 손끝을 내 코앞까지 가져갔다가 아차 싶었는지 다시 손을 거두며 자신의 이마를 가리켰다. 나는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지 단번에 알았다. 이마 위에 하나의 은하수마냥 그려져 있는 시퍼런 멍을 말하는 것이었다.

미심쩍은 감정이 다시 한 번 샘솟았다. 어쩌면 지난주부터 멍의 존재를 깨달았던 걸지도 모른다고도 생각했다. 내게 앞머리가 가관이라며 손으로 다듬어주려던 그때

부터. 재빨리 몸을 피했다 생각했는데도 이미 눈에 들어왔던 걸까. 그래서 방금 전, 내 앞머리에 손을 댄 걸지도, 즉 이마를 확인해보려 그런 걸지도.

보건실로 따라 들어서자 늘 따스하게 유지되던 보건실 특유의 온기가 온몸을 감쌌다. 보건선생님은 평온한 낮빛으로 나와 남은설을 번갈아 보았다. 선생님이 무슨 일 이냐고 묻기도 전에 남은설이 먼저 입을 열었다.

“선생님, 서해 멍이 좀 심해서 왔어요.”

“그래? 그럼 잠시 이마 좀 볼까?”

선생님은 약이나 치료도구들이 무수한 사물함 옆으로 의자를 마련해주셨다. 나는 말없이 의자에 앉아 앞머리를 들춰 이마에 멍을 드러냈다. 선생님이 봐도 꽤나 심각한 상해였는지 “어이구, 많이 아팠겠는데?” 라며 미간을 찡그렸다. 그리곤 유리판으로 되어있는 사물함을 열어 연고 하나를 꺼내었다.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레 물었다.

“선생님 혹시 제가 직접 발라도 괜찮나요?”

상대방이 머리 주변으로 손을 대는 것에 민감해진 나는 선생님이 대신 발라주려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들었다. 그러자 선생님은 “그럴래?” 하고 묻고선 전체적으로 골고루 펴 바르라는 말과 연고는 가져도 되니 하루에 한 번 꾸준히 바르라는 말을 함께 연고와 면봉을 건넸다. 내가 “감사합니다.” 라며 꾸벅, 인사를 드리자 남은설도 뒤따라 고개를 숙인 뒤, 함께 보건실을 나섰다.

“먼저 올라가, 그냥.”

내가 화장실로 들어가면서 그렇게 건네자 남은설이 미심 가득한 눈으로 잠시 주춤하다 이내 결심한 듯 자리를 비웠다.

“꼭 바르고 와.”

남은설의 표정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있었지만 마저 기다리기까지 하면 정말 감시하는 것과 다름없음을 본인도 느낀 건지 자리를 피했다.

나는 남은설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시선을 놓지 않았고 계단을 올라가는 발걸음까지 귀에 담고 나서야 화장실로 들어섰다.

한 손에 담긴 연고와 면봉을 보니 묵혀두었던 한숨이 꺾, 뿔어져 나왔다. 그 애가 이렇게까지 힘을 쓰는 모습이 부질없게 느껴졌다. 동시에 아직도 이 상황의 필요성마저 까마득했다. 이걸 왜 내 손으로 움켜쥐고 있는 건지. 오래도록 간직해왔던 피멍을 지금에서야 치료하는 게 무슨 의미가 남는지. 가치라고는 하염없이 손을 뻗어도 잡히지가 않는데.

역시나 끝맺음에는 허무감만이 맴돌았다. 나는 면봉을 손아귀로 짓눌러 부러트리곤 연고와 함께 쓰레기통으로 던져 넣었다. 휴지더미에 무심히 던져진 연고와 막대가 이리저리 부러진 면봉을 내려다보니 다소 비참한 생각이 돌아났다. 몸통이 호되도록 비틀린 면봉의 모습이 마치 지금의 나와 거울을 비추듯 매우 닮아있다고 의식했다. 외형이든 내심이든 상흔으로 범벅이 된 지금의 내 모습과 매우 흡사해보였다.

나는 어느 순간부터 늘 이런 식이었다. 빛을 건네도 내 눈에는 어둠만이 담길 뿐



이라며, 불씨를 뿌려보아야 금세 사그라질 거라며 빛을 밀어내는 사람. 저 버려진 연고처럼 상처를 지워내는 방도를 눈앞에 가져다대도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돌아날 상해를 생각하며 도리질과 함께 내치는 편이었다.

화장실에서 벗어나니 복도는 쓸쓸할 정도로 고요했다. 컷가로 들리는 건 수업 중 열심히 설명하시는 선생님들의 음성만 희미하게 들리는 정도였다. 나는 적요한 공기를 가르며 2층으로 올랐다.

공부에 열중하던 아이들은 내가 문을 여는 소리에 뒤를 힐끔 응시하다가 관심이 없다는 듯 다시 교과서로 시선을 뺐다. 그중 남운설은 제외하고.

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표정을 유지하며 자리로 앉았다. 남운설은 내가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고 나서야 눈을 뗐다. 저 녀석은 곧 있으면 내 일거수일투족을 미행하며 붙어 다닐지도 모르겠다. 이젠 저 녀석 탓에 숨만 쉬어도 없던 눈치가 곤두설 지경이다. 예전부터 남운설따위 신경 끄자, 눈앞에 직접 찾아와도 관심을 버리자는 기세로 다짐했건만, 지금은 같은 공간에만 있어도 숨이 턱턱 막혔다.

아, 생각에 깊이 빠져들수록 누가 내 머리를 감싸고 뒤흔드는 듯이 복잡했다. 나는 최대한 소리를 죽이며 “하, 씨이……” 하고 한숨을 더한 신음을 불었다. 그 뒤로도 수업이 막에 도달할 때까지 머릿속은 계속해서 잡념으로 엉켜있었다.

나는 아이들이 가방을 챙기며 수다를 떠는 동안 턱을 괴고 앉아 멍하니 정면만 응시했다. 하지만 남운설이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며 내 옆으로 지나가는 바람에 멍한 정신이 일깨웠다. 단지 뒷문을 향해 옆으로 지나가는 것뿐인데 왜 눈길에 매달릴까. 한 사람에게 신경을 쏟는 일은 꽤나 번거로운 일인데도 저 녀석이 언제 내게 다가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노심이 계속해서 일어났다.

문으로 끝까지 걸어가는 모습을 보니 다행히도 이번에는 그냥 지나치나 싶었다. 그런데 남운설이 교실 밖으로 발을 딛으려하자 무언가 생각이 난 듯 잠시 멈칫했다. 그리곤 주변 친구들에게 너네끼리 가라며, 나는 잠시 남아서 할 게 있다며 양해를 구했다. 앞에 있던 한 아이가 가능하면 독서실에서 같이 하면 안 되냐고 묻자 남운설은 오늘은 조금 힘들 것 같다며, 내일은 시간 괜찮으니 그때 같이 하자며 대답을 건넸다. 나는 아이들이 남운설의 말을 따라 돌아가자 왠지 모를 불안감이 뒤엎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고개를 정면으로 돌리고 애써 뒤를 외면했지만, 내 예상에 들어맞게 남운설은 내 옆으로 다가왔다.

“서혜, 집에 안 가? 혹시 시간되면 같이 갈래?”

가끔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보면 얘기 한두 번 나눈 걸로 가까워졌다 단정하고 계속해서 들이대는 상황이 존재했다. 나는 들이대는 쪽, 받아주는 쪽 어느 편도 공감을 사지 못했다. ‘넌 나랑 몇 번 눈을 마주쳤으니 나랑 같이 집에 가야 돼!’, ‘지난번 내가 너에게 어느 정도 도움을 준 적이 있으니 나랑 같이 밥 먹어야 돼!’ 이런 것도 아닌데 어떻게 짧은 만남을 시작으로 그렇게 연을 쌓는지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러니 남운설의 이러한 행동들이 내겐 부담이 될뿐더러 이 상황 자체가 어쭙잖고

넌더리나게 느껴졌다.

나는 결국 지금까지 꼭 닫고 있던 입을 열기로 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이런 애랑 원하지도 않는 관계를 얽히고 싶지 않다.

“너 잠깐 따라와 봐.”

나는 언짢은 티를 내려 일부러 목소리에 심기를 드러냈다. 남은설은 목소리에 날이 세워진 걸 알아챘는지, 애써 상냥하게 웃던 입꼬리와 동공이 파르르, 떨리며 풀어졌다. 나는 남은설의 손목에 위치한 옷자락을 끌며 교실을 벗어났다.

막상 밖으로 데려오니 무슨 말로 운을 떼야 할지 복잡했다. 나는 최대한의 예의를 갖춘 말투를 어떻게 구사하는지 모르지만 일단 천천히 하나하나씩 뻗어보기로 했다. 남은설은 조금 긴장이 두드러졌지만 최대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려는 듯 나를 푹푹 바라보았다.

“저기,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마주쳤던 일을 생각하면 그리 밝은 분위기도 아니었고, 어느 정도 대화를 나눴다 해서 서로 가까워진 입장도 아니잖아. 그래서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너에 대한 인식이 그리 좋지는 않아. 함부로 내 몸에 손을 대고, 자해든 멍이든 나는 바라지도 않았는데 함부로 참견을 주는 모습이 아직도 생생한데, 그런 일들을 묵살해버리듯 자연스레 말을 거니까 네가 너무 무뎠해보이더라. 원래 네가 배려심 없는 애는 아니란 걸 알지만 전부터 네 옆에만 서면 그동안 있었던 일들이 자꾸 떠올라서 기분이 거북스럽거든. 그래서 말이지……”

남은설은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안쪽 볼 살을 씹으며 시선을 점점 아래로 뺐었다. 전하고자 하는 말 자체가 상대에게 착잡한 기분을 줄만한 내용이니 이 녀석도 충분히 자책감이 드는 모양이었다. 나는 침을 한 번 꿀꺽, 삼킨 뒤 마지막으로 뺨고자 입을 열었다.

“미안하지만, 앞으로 나에 대한 관심은 자제했으면 좋겠어, 평생.”

그렇게 던지자 남은설은 살짝 병쩍 얼굴을 보이며 “어……?” 하고 무의식적으로 되물었다. 한 편으로 보면 그 말이 칼날이라도 된 듯 상처를 정통으로 맞은 모습처럼 보이기도 했다.

상처가 되는 마디라도 꼬인 매듭을 푸는 것이 내겐 상책이었다. 남은설도 그저 다른 학생들처럼 나와 먼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내 판에는 더욱 편안했고, 나같이 결핍으로 이루어진 애와 어울리는 짓은 가당찮이 느껴졌다. 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아이들과 얽히는 게 남은설에겐 더욱 이득이었다. 나는 이 애가 그 사실을 직시했으면 하는 바램이었다.

“친구들한테 허락까지 말했는데 미안해. 나는 먼저 갈게. 너도 네 친구들한테 가.”

오늘도 야자 시작하는 시간 근처에도 못가보고 발걸음을 일찍 옮기기로 하였다. 개는 악의가 전혀 없어보였는데, 괜히 쓴소리만 엮은 게 아닌가 싶어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다시 학교 안으로 들어서려던 그때, 남은설이 나를 불러 세웠다.

“저기, 서해야.”

나는 무슨 일인가 싶어 남은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약은 발랐어?”

나는 턱이 얼어붙은 듯 쉽게 대답을 드러내지 못했다. 굉장히 미묘한 감정을 싹 틔우는 질문이었다. 웬지 모르게 그 질문이 저 녀석의 실상을 비추는 것 같았다. 정말 악의라곤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순진한 물음이었고, 그 심성에 결국 내 녀은 행방을 잃었다. 방금까지 내가 험한 말로 네 감정에 얼마나 무게를 실었는데 와중에 그게 묻고 싶었을까.

나는 마지막이라 생각하며 무심하게 대답을 놓았다.

“발랐어. 앞으로도 꾸준히 바를 테니까 연연하지 마.”

남은설은 알았다는 대답도, 나를 따라 학교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나는 그러든 말든 교실로 발걸음을 돌렸다.

(이어서……)

털어놓고 나서 후련한 기분을 예상했건만 손에 자그마한 가시가 박힌 듯 무언가 찝찝하게 걸리는 감정만이 남았다. 그밖에도 앞으로 시달릴 공허감까지 걱정이 되었다.

나중에서야 그 애의 빈자리를 느끼게 되면 어떡하지?

쓸데없는 근심이라는 것을 깨우치면서도 불씨는 쉽게 꺼지지 않았다.